



# 감상의 즐거움

- 18. 한국 미술의 여정
- 19. 동양 미술의 자취
- 20. 서양 미술의 모험



## 단원 개관

이 대단원에서는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미술 문화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과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고,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 작품을 다양한 측면에서 감상하고, 해석하며, 비평하면서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깨닫는다. 더불어 확장된 미술의 영역과 다양한 미술의 형태를 이해하면서 다양한 미술 문화를 체험토록 한다. 한국의 미술, 동양의 미술과 서양의 미술을 살펴보면서 세계의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의 특징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원 목표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 단원 교수·학습 계획

소단원명	차시	학습 내용	교과서 쪽
18. 한국 미술의 여정	4	•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과 변천 과정 이해하기 • 우리나라 미술의 주요 유적, 유물, 작품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과 맥락 설명하기 •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형식, 내용, 가치 해석하기	76~83
19. 동양 미술의 자취	2	• 중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동양 미술의 흐름과 변천 과정 이해하기 • 각 지역 미술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맥락 설명하기 •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형식, 내용, 가치 해석하기	84~87
20. 서양 미술의 모험	4	• 서양 미술의 흐름과 변천 과정 이해하기 • 주요 양식 및 사조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과 맥락 설명하기 •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형식, 내용, 가치 해석하기	88~97
*미술사 연대표		• 동서양과 한국 미술사 연대표	98~99

# 18 한국 미술의 여정

교과서 pp. 76~83

<b>단원 설정 이유</b>	한국 미술을 살펴 보면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탐구할 수 있기 위해 설정하였다.
<b>학습 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과 변천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li> <li>• 한국 미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우리 미술 문화의 국제성과 독창성을 설명할 수 있다.</li> </ul>
<b>차시</b>	4
<b>평가 요소</b>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과 특징에 대한 이해 능력, 미술 작품의 맥락적 해석 능력, 미술 용어와 지식의 활용 및 소통 능력
<b>평가 방법</b>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보고서법, 연구 보고서법,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법
<b>교과 역량</b>	미적 감수성,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b>성취 기준</b>	9미03-01 / 9미03-02 / 9미03-03

## 교수 · 학습 과정

### 도입

#### [생각 열기]

- 조선 시대에 그려진 산수화와 동일한 장소를 찍은 현재의 사진을 비교하여 수백년 전 한반도의 모습과 선조들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발견하도록 한다. 우리의 산천과 진솔한 생활상을 담은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를 소개한다.

### 전개

-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을 통해 한국 미술사의 흐름과 시대별 특징을 이해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 [감상 포인트]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유물과 작품들의 양식적 특징과 시대적 배경 및 맥락을 설명한다.
- 한국 고유의 미의식을 파악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작품의 단독 감상과 비평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미술 문화와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 정리

- 시대별 주요 작품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리나라 미술품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 발표해 본다.

## 지도상의 유의점

- 우리나라 미술 작품 속에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음을 이해하고,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시대별 주요 작품을 보며 미술 문화의 특징을 시대적 맥락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 선사 시대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예시 작품으로 준비하여 미술의 변천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감상의 즐거움

# 18

한국 미술의 여정

학습 목표

-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과 변천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한국 미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우리 미술 문화의 국제성과 독창성을 설명할 수 있다.

미술 ①-16

**생각 열기**

200여 년 전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조선 시대 중반까지도 우리의 산수화는 중국의 이상적인 산수화와 다를 바가 없었으나, 조선 후기 경계 정선이 우리나라의 산세에 맞는 새로운 준비를 개발하여 우리 고유의 산수화를 발전시켰다. 정선은 우리의 산천을 직접 여행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면서 거기에 맞는 '경계'를 만들어 냈다. 정선의 주된 관심은 관찰과 예술적인 기량이 우리의 자연과 만나 탄생한 진경 산수화는 민족의식이 담긴 한국적인 화풍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미술 작품 속에는 그 시대의 사상이나 문화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습과 삶의 단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선조들의 미의식과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미술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전통의 향기를 느껴 보자.




**정선**(조선/1676~1759) **향적산(향적산)**에 수목 당채(25·23cm/18세기) 작. 서울 합정동에 있는 장두봉의 경관을 그린 진경 산수화이다. 장두봉은 병인양요 때 외국인 신부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곳으로 오늘날에는 절두산 순교 성지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향적교가 있는 한양의 정자나무에서 나뭇잎을 딴 한 신부가 한가로운 날씨가 낯설음을 드러낸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김홍도**(조선/1745~1806) **빨래터**에 수목 당채(28x24cm/18세기 후반) 작.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한 우리의 조상은 자연스러운 미의식을 바탕으로 소박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전통 미술을 발전시켰다. 아시아 문화의 교류에 이바지하며 독창적인 미술을 꽃피운 한국 미술의 변천과 흐름을 살펴보자.

76

## 감상 포인트 및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생각 열기:** 정선의 산수화와 현재의 사진을 비교하며 현대화 되어 달라진 부분, 예전과 다름없이 전해오는 부분을 찾아보고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 ● 정선 / 양화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5 외국인 묘지 부근 절두산 일대의 옛 모습이다. 지금은 절두산(切頭山)이라 부르지만 조선 시대에는 강가에 절벽을 이루며 솟구쳐 나온 산봉우리가 누에머리나 용머리 같다고 하여 잠두봉 또는 용두봉이라 불렀다. 절두는 머리를 자른다는 뜻으로 고종 3년(1866) 병인양요 때 외국인 신부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어서 오늘날에는 이 일대가 절두산 순교 성지로 지정되어 있다.

**감상 포인트:**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흥미를 갖도록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스토리텔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김홍도 / 빨래터

조선 후기 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과 일상생활의 여러 정경을 담은 김홍도의 풍속화이다. 빨래하는 여인들의 생생한 모습과 당시의 옷차림 및 풍속, 아낙네들을 몰래 훑쳐 보는 양반 등을 간결한 선과 여백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선사 시대 | 염원을 담은 미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이어지는 선사 시대에 우리의 선조는 다양한 도구와 유물 및 유적을 남겼다. 구석기 시대의 뱀살기와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는 실용성과 함께 아름다움을 담은 도구들이다. 각종 동물이 새겨진 신석기 시대 말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제작된 암각화는 중요한 포획의 염원을 담고 있으며,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방울이나 전무늬 청동거울 등은 뛰어난 청동 제작 기술을 보여 준다.



쌍두령(청동기) 길이 약 15~18cm 기원전 3~2세기(국보 제46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10m, 부분신석기 말~청동기 초기) 2003년 제25차 울진광역시 울주군 소재 선사인들의 수렵과 어로 생활이 단순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된 귀중한 선사 시대 문화유산이다.

**삼국 시대의 미술 | 고대 왕국의 개성 넘치는 미술 문화**

기원 원년을 전후하여 고대 왕국을 창설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기 다른 독특한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삼국 시대에 우리 민족은 조화로움 미의식과 순수한 자연미를 드러내는 한편, 4세기 말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불교 미술을 발전시켰다.

● **고구려(기원전 37~기원후 668)**

북방의 넓은 영토를 개척한 고구려는 역동적인 생동감과 진취적인 기상이 넘치는 미술을 남겼다. 안악 3호분, 무용총, 강서대묘와 같은 옛 무덤에는 무덤 주인공의 초상화뿐 아니라 고구려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수렵 장면이 생생한 색채로 그려져 있다.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한 고구려는 강인하면서도 정교한 형식의 불상을 제작하였다.



금동 연가칠년명 여래입상(높이 16.2cm)539년(국보 제175호) 금대 원대에 왕음이 있어 조성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금동불상이다. 좌우로 펼쳐진 팔자에서 고구려 특유의 강인함과 생동감이 느껴지는 한편 기품 있는 얼굴에 위엄 있는 미소를 띠고 있어 내면적인 정신성을 전달하고 있다.



무용총 수렵도(5세기)고분 벽화(중국 지린성 소재 생동감이 넘치는 역동적인 구성은 중국 회화의 영향을 받아낸 고구려의 독자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울로 제관의 지물이며 오늘날 무속에서 요령이라고 부르는 무구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 방울은 모두 쌍으로 출토되었는데, 쌍방울(위), 가지방울(아래)과 팔모방울이 대부분이다. 방울은 실제로 손에 쥐고 흔들기 알맞은 크기이며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 무덤 유적에서는 청동거울, 세형동검 등과 함께 출토되기도 했다.

**삼국 시대의 미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및 가야의 독특한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작품을 통해 확인한다.**

**감상 포인트**

- 1) 불교의 전래와 불교 미술의 등장: 중국으로부터 삼국에 전래된 불교가 중앙 집중적인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음을 강조한다.
- 2) 고구려, 백제, 신라의 미술을 비교 감상하며 서로 다른 미의식과 조형성을 찾아보도록 유도한다. 특히 주요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삼국 각각의 고유한 미의식과 조형적 특징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고구려의 역동적인 미술**

● **무용총 수렵도**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사냥하는 모습은 중국에서 정형화된 도상이지만 이 고구려 벽화는 이를 그대로 옮겨 그리지 않고 생동감이 넘치는 독창적인 회화로 재구성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는 뒤를 돌아보며 사슴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은 배사법이라 불리는 사냥술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뒤로 돌아 활을 당기는 것이다. 말의 움직임과 사냥꾼의 활이 향하는 진행 방향이 달라 전체 화면에 역동감을 불어넣는다. 인물과 동물의 묘사도 정확하며 배경으로 그린 산자락에도 울동감이 넘친다.

● **안악 3호분 풍속도**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분으로서 고구려 고분 벽화의 출발로 볼 수 있다. 무덤 내에서 발견된 70자의 목서명을 통해 연의 장수이자 고구려로 귀화한 동수의 묘라 알려졌으나 고국원왕과 미천왕의 묘라 주장하는 주장도 있다. 부엌, 우물가, 외양간 등의 장면들은 아주 소박한 필치로 표현하여 풍속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안악 3호분 묘주의 초상/357년경

● **금동 연가칠년명 여래입상**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성 연대를 알 수 있는 불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고구려 불상이다. 삼국 시대의 불상은

**선사 시대의 미술: 삶의 풍요로움과 자손의 다산을 염원하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감상한다.**

**감상 포인트**

- 1) 반구대 암각화의 재료 사용과 표현 방식에 주목하여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 환조와 다른 부조 형식, 선새김(선각)과 면새김(면각)같은 새김 기법 등을 설명하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2) 쌍두령은 종교적인 무속 의식에서 사용된 무구로 추정된다. 종교적인 의식은 왜 출현했는지 질문하고, 종교와 정치의 출현에 기반을 둔 계급사회 및 국가의 형성을 설명한다.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반구대 암각화는 높이 약 4m, 폭 10m의 암벽에 고래, 사슴, 멧돼지 등 총 231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이 암각화에서 동물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인간은 동작을 설명하는 정도로만 비취지는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냥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울산만은 예로부터 고래들이 회유하는 곳으로 포경 산업이 발달하였는데 암각화에 나오는 작살 맞은 고래나 여러 사람을 태운 배와 그물 등은 당시의 고래 사냥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여 진다. 조각의 기법은 면새김과 선새김 두 가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 효과를 주고 있다.

● **쌍두령**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중 하나인 청동 방

대체로 중국 남북조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였는데, 긴 얼굴과 옷자락이 날카롭게 뻗어 있는 조각 기법 등에서 중국 북조의 북위 불상 양식이 나타나 있다.

### 백제의 온화하고 섬세한 미술

#### ● 서산 마애 삼존불상

반가사유상과 보주를 들고 있는 보살입상을 좌우 협시로 한 독특한 삼존불로, 백제 조각의 완숙미를 보여주는 최고의 걸작이다. 완벽하고 정교한 조각 기법에서 백제 특유의 조형감을 보여준다. 특히 눈을 크게 뜨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본존불은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져 있다.

#### ● 산수무늬 벽돌

불교적 요소와 도교적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작품이다. 벽돌에 산과 냇물을 표현하였는데 앞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뒤로는 기암괴석과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들이 첩첩이 자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후경이 전경 위에 얹혀있는 듯한 백제 특유의 원근법이 잘 나타나 있다.

#### ●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의 독특한 정서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 향로는 다른 향로에 비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크고 기법이 완벽하며 대상의 묘사가 정확하고 상징적 내용이 풍부하다. 몸체와 뚜껑은 분리되어 있으며 뚜껑 곳곳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향연기가 피어올라 마치 신선이 사는 환상적인 산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향로는 뛰어난 주조 기술을 보여줄 뿐 아니라 중국의 음양설과 불교의 연화화생관, 도교의 신선 사상 등이 복합된 백제만의 독창적인 금속 공예품이라 할 수 있다.

### 신라의 화려하고 정교한 미술

#### ● 기마 인물형 주자 토기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한 쌍의 기마 인물형 주자 토기로 머리에 깃털을 꽂은 주자는 화랑 상으로 추정되며 머리에 상투를 튼 낭도 상으로 추정된다. 주구의 높이가 낮아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말과 인물의 정확하고 대담한 표현은 조각 작품처럼 뛰어난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 ● 황남대총 금관

현재 확인된 신라 무덤 가운데 가장 큰 무덤인 경주 황남대총의 북부에서 발견되었다. 신라 금관의 전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나뭇가지 모양을 장식한 금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고개를 약간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보살 반가상으로 백제 또는 신라의 불상으로 추정되었으나 근래에는 신라 불상설이 유력하다. 신체의 둥근 곡선이 단순하면서도 입체적인 조형감을 보여주며, 손가락과 발가락의 미묘한 움직임으로 생동감이 느껴진다. 양식상 일본 고류지 목조 반가사유

#### ◆ 백제(기원전 18~기원후 660)

중국 남조와 교류하며 고구려 미술을 수용한 백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특히 서산의 마애 삼존불상은 백제 특유의 부드러운 조형미를 담고 있으며, 금동 대향로는 탁월한 공예 기술을 보여 준다.



서산 마애 삼존불상(높이 280cm/7세기(국보 제84호)) 충남 서산 소재 인자하게 웃는 본존불은 '백제의 미소'로 알려져 있다.



산수무늬 벽돌(높이 29.7cm/6~7세기(보물 제343호)) 국립 부여박물관. 균형 잡힌 구도와 유인물이 돋보이는 바다 벽돌로 초기 산수화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백제 금동 대향로(높이 64cm/6~7세기(국보 제287호)) 국립부여박물관. 향로의 몸체는 불교적인 연꽃으로 되어 있고 뚜껑은 신선이 사는 도교의 신선산(仙山)으로 조형되어 있어 불교와 도교의 융합을 보여 준다. 신선이 죽어가는 비파를 비롯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다섯 명의 학사가 묘사되어 있다.

#### ◆ 신라(기원전 57~기원후 654)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외래문화의 유입이 늦었던 신라는 소박한 토우와 토기, 화려한 금속 공예와 정교한 불상 조각 등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 미술을 발전시켰다. 신라를 비롯한 삼국 시대의 미술은 이웃 나라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마 인물형 주자 토기(높이 26.8cm, 23.5cm/5~6세기(국보 제91호))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한 쌍의 기마 인물형 토기로 각각 신라의 화랑(상 위)과 낭도(상 좌)로 추정된다.



금동반가사유상(높이 93.5cm/7세기(국보 제83호))



분황사 오천 석탑(높이 930cm/534년(국보 제30호)) 경북 경주에 현재 남아 있는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로 양으로 깎아서 쌓아올린 조적사 오천 석탑이다.

#### ◆ 가야(42~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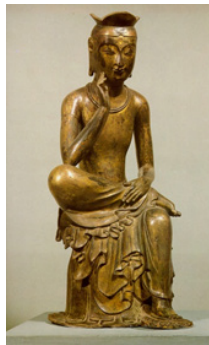
제철 기술이 발달했던 가야는 수준 높은 철기 문화와 다양한 상형 토기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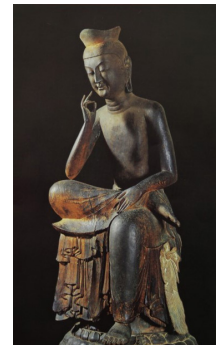
● 기마 인물형 각비 토기(높이 23cm/5세기(국보 제275호))  
● 칠채검모와 투구(5세기경)

78

상과 매우 유사하여 삼국의 불상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금동반가사유상(신라/7세기/국보83호)



고류지 목조반가사유상(일본/아스카 시대/7세기/신국보 1호)

**통일 신라의 미술:** 불교 미술의 최고 전성기였던 통일 신라의 미술 문화가 지닌 국제성과 독창성을 이해한다.

#### ● 불국사 삼층석탑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요소인 비례, 균형, 조화가 모두 들어 있는 통일 신라의 삼층 석탑으로 상층 기단의 길이와 탑 몸체의 높이는 황금 비례를 이룬다. 안정감이 넘치는 감은사지 삼층 석탑에서 이중 기단에 삼층 탑신이라는 삼층탑의 전형 양식이 탄생한 이래, 불국사의 삼층 석탑에서 안정감과 상승감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비율이 완성되어 불교 석조 미술의 절정을 보여 준다.

**통일 신라의 미술 | 불교 미술의 황금기**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흡수하고 중국 당나라와 인도 및 서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국제적이면서도 독자적인 미술을 발전시켰다. 왕실과 귀족의 작극적인 지원으로 불교 문화의 황금기를 이룩한 통일 신라는 세련되고 원숙한 미의식을 유감없이 발휘한 불교 미술을 남겼다. 특히 전성기였던 8세기 경주 지역에 세워진 불국사와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과 불교 조각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불교 미술이다.



**불국사 석승 석탑**(높이 8.2m)8세기 중엽(국보 제24호) 석가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석승 석탑은 안장암과 상승암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통일 신라의 대표적 석탑이다. 1966년 탑의 해체 수리 작업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인 무구명대대리(당인) 장안 사리함의 발견되었다.

무구명대대리(장안) 647m/751년 이전 추정(국보 제26호)



**석굴암 본존상**(높이 326cm)8세기 중엽(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의 본존 불상은 약가를 물리쳐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상징하는 항아초자인을 하고 있다. 균형 잡힌 신체와 자연스러운 모양, 섬세한 법의와 웅장한 발상은 종교적인 신비감을 느끼게 한다.



**성덕대왕 신종**(높이 356cm/771년)국보 제29호 비현상은 우리나라 범종에서 만날 수 없는 특종이다.

**더 알아보기 | 통일 신라의 국제성**

경상북도 칠곡군의 송림사 오층전탑에서 발견된 사리기와 경주의 쾌릉을 호위하는 무인 석상은 통일 신라의 국제성을 보여 주는 미술품이다. 사리를 담은 녹색 사리병과 유리잔은 서역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쾌릉의 무인 석상은 중앙아시아 제릉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유물들은 중국 당나라뿐 아니라 멀리 서역과 교류했던 통일 신라의 문화적 국제성을 잘 보여 준다.



**경주 쾌릉 무인 석상**(높이 246cm)8세기



**송림사 오층전탑 사리기**(높이 22.3cm/7세기 후반)

**발해의 미술**

고구려의 유민 대조영이 옛 고구려 영토에 세운 발해는 고구려와 당나라의 미술 전통을 수용하여 뛰어난 수준의 석조 미술을 남겼다.



**용머리 석조상**(높이 37cm)8-9세기 발해의 수도였던 중국의 상경성 경덕에서 출토된 석조상으로, 건물 개관을 장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감상 포인트**

- 1) 탑의 기원: 탑은 원래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불교의 사찰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음을 설명한다.
- 2) 감은사지 삼층 석탑과 불국사 삼층 석탑 비교 감상: 육중하고 안정감 있는 감은사지 석탑과 날씬하고 상승감이 느껴지는 불국사 석탑을 비교 감상하며 달라진 비례가 주는 다른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 3) 석가탑과 다보탑 비교: 석가여래를 상징하는 석가탑과 다보여래를 상징하는 다보탑이 각각 지닌 단순한 조화미와 화려한 장식미를 비교 감상하고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감은사지 삼층 석탑**  
(682년/높이 13.4m, 국보 112호) 경북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  
(8세기 중엽/높이 8.2m, 국보 21호) 경주



**불국사 다보탑**  
(8세기 중엽/높이 10.4m, 국보 20호) 경주

■ 참고 동영상: 지식채널 e [비례, 균형, 조화의 불국사]

<http://www.ebs.co.kr/tv/show?courseId=BP0PAPB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3126341>

● **석굴암 본존상**

정면을 향해 결가부좌한 불좌상으로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늘어뜨린 항아초자인을 하고 있다. 근엄한 얼굴에는 신비감이 엿보이며 넓은 어깨와 당당한 가슴 등 양감 있는 신체 표현은 인도의 굽타 시대 불상과 중국 당대 불상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불상 양식이다. 종교적인 위엄과 신비로운 안정감이 공존하는 석굴암 본존불은 우리나라 불교 조각의 최고 경지를 보여준다.

● **성덕대왕 신종**

원래 봉덕사에 위치했던 종으로 어린아이를 넣어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에밀레종’이란 이름으로 유명하다. 신라의 종 중에서 크기와 조형미가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 **지식 참고**

■ **핵심:** 통일 신라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멀리 인도와 서역, 가까이 중국 및 일본과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국제적이면서도 독자적인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유리 사리기와 쾌릉 무인석상을 보고 국제적인 교류의 흔적을 찾아보도록 한다.

● **송림사 오층전탑 사리기**

탑은 기본적으로 부처의 사리를 영구히 안전하게 봉안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이다. 사리를 탑에 안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와 여러 가지 공양물을 사리장엄구라고 하는데 송림사 오층전탑 사리기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보장형 사리기의 대표작이다.



송림사 오층전탑 사리기 - 녹색 유리컵과 사리병을 갖춘 사리기로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보장형 사리기의 대표작이다.

● **경주 쾌릉 무인석상**

통일 신라 시대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쾌릉리 무덤의 석조물로, 높은 수준의 조각 기술을 보여준다. 강인하면서도 사실적인 서역인의 얼굴을 한 무인석은 신라와 서역 간의 교류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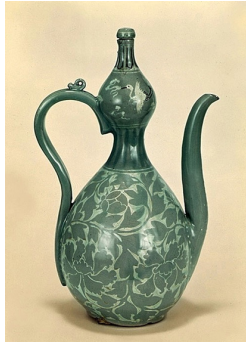
**고려 시대의 미술:** 청자와 불화로 대표되는 고려의 귀족적인 미술 문화의 특징을 감상하고 이해한다.

● **청자 오리형 연적**

물이나 동물의 형태를 본떠 만든 상형 청자의 하나로, 고려 장인의 수준 높은 기술이 마음껏 발휘된 작품이다. 유약의 맛이 깊고 은은한 비취 옥빛을 띠어 ‘비색’청자라 불리는 순청자는 고려청자의 절정기인 12세기 전반에 주로 제작되었다. 12세기 후반부터는 청자에 상감 문양을 넣은 상감 청자가 융성하여 순청자와 함께 고려청자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였다.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12세기 전반/높이 26.3cm/국보 60호) 국립중앙박물관



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박형 주전자(12세기 후반/높이 34.3cm/국보 116호) 국립중앙박물관

**감상 포인트: 고려청자의 아름다움**

- 1) 순철자와 상감 청자 비교 감상: 깊고도 신비로운 비색이 돋보이는 순철자와 정교한 문양이 상감된 상감 청자를 비교 감상한다.
- 2) 조형적인 아름다움 감상: 사자의 입에서 향이 뿜어지도록 만들어진 사자 향로와 시원스럽고 유연한 곡선이 돋보이는 표주박형 주전자의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수월관음도**

수월관음은 물가에 앉아 물속의 달을 쳐다보는 보살로, 주로 기암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과 연못의 바위에 작은 선재동자의 모습이 함께 그려진다. 정교하고 섬세한 고려 불화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수월관음도 세부. 그림의 왼쪽 구석에 그려진 선재동자.

**■ 지식 창고**

• 부석사 무량수전(13세기경/국보 18호) - 부석사의 본전인 무량수전은 고려 시대의 불전으로 1376년에 재건되었다. 정면 5칸, 측면 3칸에 팔각지붕의 주심포 형식으로 기둥의 배흘림과 귀솟음, 지붕의 조형 등 목조 건축이 가지는 전통 의장 기법을 모두 내재하고 있어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다운 조형미를 가진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 시대의 미술 | 귀족적인 미술 문화**

물품을 장려한 고려 시대에는 회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화려하고 귀족적인 미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0세기에서 12세기 중반에 이르는 전기에는 의욕과 기백이 넘치는 불교 미술과 유교의 영향을 받은 세련된 귀족 문화가 발전하였다. 12세기에 절정에 이른 고려의 청자는 은은한 비색 청자와 섬세한 상감 청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 예술을 선보였다. 한편 무신의 난 이후의 후기에는 불교 회화와 사찰 건축이 융성하였다. 특히 정교하고 섬세한 묘사력이 돋보이는 고려 불화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청자 오리형 연덕 (높이 8cm/12세기 전반/국보 제74호) 은은한 비색 목질을 지닌 비색 청자의 절정기에 제작된 것으로 탈락 있는 국산의 가슴부위 횡단 직선의 부리가 아름다운 완연한 조형미를 보여 준다.

함흥사지 석조 보살좌상(높이 92.4cm, 10세기/국보 제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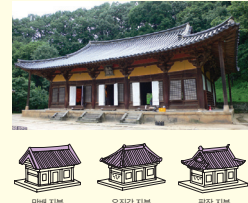


수월관음도(비단에 채색/65.5x101.5cm/1323년 작)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높이 3.4m/977년경 작/국보 제4호)경기 여주군 상곡리.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불각당 형태의 승탑으로, 기단부에 세겨진 역동적인 용과 거북 조각에서 고려 왕조의 힘이 느껴진다.

**더 알아보기 |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지혜**

우리의 선조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도 건축 고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전통 목조 건축을 발전시켰다. 특히 고려 시대에는 산수 풍류가 성행하면서 신지 기법이 많이 세워졌다. 그 중 부석사 무량수전은 간결하고 단아한 주심포 양식에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배흘림기둥을 사용하여 고려 시대 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크면서도 유려하고 정교한 곡선미가 돋보인다.



부석사 무량수전(13세기 경/국보 제18호) 광복 양주시 부석면 소재 기암 위에는 공로를 베택지 단아한 주심포의 건물로 배흘림기둥과 팔각 지붕이 편안한 안정감을 준다.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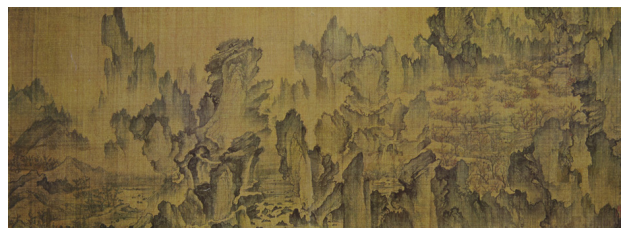
팔작 지붕

**조선 시대의 미술: 성리학에 기반을 둔 신진 사대부의 실용적인 면서도 순수한 미술 문화를 감상하고 이해한다.**

**조선 전반기: 조선 초기~중기(1392~1700)**

**● 안건 / 몽유도원도**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에서 박팽년과 함께 도원을 거닐었던 내용을 안건에게 그리게 하여 3일 만에 완성한 걸작이다. 이 그림은 안건뿐 아니라 명필가였던 안평대군의 서예, 또한 신숙주, 정인지, 김종서, 박팽년, 서거정, 성삼문 등의 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 있는 산수를 배경으로 안개에 싸인 숲 너머에 동양의 이상향인 '무릉도원'이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안건은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화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정4품 벼슬을 지냈으며, 북송의 광희 화풍을 연구하여 안건 화풍을 완성하였다.



몽유도원도 (비단에 수묵 담채/38.7x106.5cm/1447년 작)

**● 청화 백자 속죽문 향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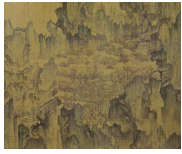
볼륨감 있는 형태와 강한 발색의 청화 문양이 돋보이는

**조선 시대의 미술 | 선비 정신이 깃든 미술**

개국 이래 엄격한 승유억불 정책을 시행한 조선은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단아하면서도 실용적인 문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조선은 국초부터 도화원을 설치하여 왕실 회화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회화와 사예가 가장 수준 높게 발전하였으며,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였다. 분청사기와 백자로 대표되는 조선의 도자는 순수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며, 경복궁, 창덕궁, 송대문, 종묘, 수원 화성 등의 건축물은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건축 기술을 보여 준다.

● **조선 초기(1392~1500)**

왕실을 중심으로 한 화원 화가와 사대부 문인 화가들이 송, 원, 명의 화풍을 수용하여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발전시켰다. 소박한 분청사기, 청아한 순백자, 화려한 청화 백자 등 조선의 도자 기술이 완성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도자를 생산하였다.



이명옥(조선 17~18세기) **홍몽도원도**(비단에 수묵 담채 38.7×106.5cm, 부분 1447년)



정화 **백자 송죽문 향아리**(높이 48.7cm/1489년)국보 제176호

● **조선 중기(약 1550~1700)**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였지만 사대부를 중심으로 수묵화가 발달하였다. 특히 어부, 태극, 관복 등 은둔 생활과 관련이 깊은 주제가 자주 그려졌다.



이명옥(조선 17~18세기) **어초문답도**(종이에 수묵 담채 94.2cm/1747년 후반)



김명국(조선 1600~17세기) **달마도**(종이에 수묵 83×57cm/1643년)

● **조선 후기(약 1700~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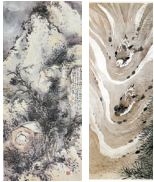
실학사상과 새로운 문화의 영향으로 민족적인 자주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예술 문화가 크게 융성하였다.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가 등장하고, 서민들의 민화도 유행하였다. 추사체를 장인한 김정희는 남종화를 유행시켜 조선 말기의 문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홍도(조선 1745~1806?) **씨름**(종이에 수묵 담채 28×24cm/1847기 후반/보물 제527호)



수원 화성 **화서문**(1796년/보물 제403호) 장안영이 설계한 화성 성곽은 조선 후기의 과학 기술과 건축술이 집약되어 있다.



● **조희룡**(조선 1789~1866) **매화**(종이에 수묵 담채 106×45cm/1947기 초)

● **홍세섭**(조선 1832~1884) **유압도**(비단에 수묵 195×138cm/1947기 후반 초)

● **조선 말기(약 1850~1897)**

조선 말기는 근대 화단으로 연결되는 전환기로, 전통적인 남종 문인화풍과 개성이 강한 새로운 화풍이 공존하였다. 조희룡, 허연 등은 김정희의 문인화 전통을 이어 갔고, 김수철, 홍세섭 등은 새롭게 이색적인 화풍을 개척하였다. 오연 장승업은 산수, 인물, 화조, 영모 등 모든 영역에 뛰어나 조선 말기 화단의 거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조선 후반기: 조선 후기~말기(1700~1897)**

● **김홍도 / 씨름**

영·정조의 문예 부흥기부터 순조 연간 초기인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에 활동한 김홍도는 어릴 적부터 강세황의 그림 지도를 받으며 성장해 정조 때 당대 최고의 화가가 되었다. 그의 풍속화들이 대부분 들어 있는 《속화첩》 중 하나인 씨름도로,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살아 있는 표정과 동작이 유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조희룡 / 매화서옥도**

조희룡은 조선 시대 후기에 문화 예술계의 신진 세력으로 등장하여 말기에는 중심 세력이 된 중서 계층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매화는 조희룡이 가장 아끼고 즐겨 그리던 소재인데 이 그림에서는 함박눈이 내리는 깊은 산 속에 어둠이 깔리고, 은둔해서 살고 있는 선비가 책상에 호젓이 앉아 병 속의 매화 한 가지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 **홍세섭 / 유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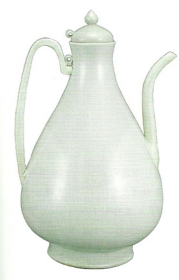
조선 말기 화단의 이색적인 화풍으로 주목받은 홍세섭의 대표작이다. 물살을 가르는 오리를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과 필선을 배제하고 수목의 농담 변화만으로 표현한 기법에서 과감한 개성이 느껴진다.

백자로 조선 왕실에서 송광사에 희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상 포인트:** 조선 도자를 대표하는 분청사기와 백자를 비교 감상한다. 분청사기의 소박함, 순백자의 깨끗함, 청화 백자의 화려함을 감상하고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분청사기



순백자



청화백자

● **이명옥 / 어초문답도**

이명옥의 유일한 현존작으로 조선 시대 고사 인물화의 최고 걸작이다. 어부와 나무꾼이 만나 한가로이 대화를 나눈다는 내용으로 여기서 어부와 나무꾼은 생업이 어부와 나무꾼이 아니라 세속의 명리를 떠나 은둔하며 살아가는 선비를 뜻한다. 물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산을 좋아하는 어진 사람의 만남을 뜻하는 이 그림은 동양적 은일 사상의 이상적인 결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근대와 현대의 미술:** 대한 제국기와 일제 강점기의 근대 미술의 특징과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 미술의 변화를 감상하고 이해한다.

**근대 미술(1897~1945)**

● **이상범 / 초동**

1920년대에 등단하여 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현대까지 활동한 이상범은 허구와 관념 예술에서 탈피하여 삶과 현실의 실체를 보여주려 하였다. 초동은 전통적인 서화 개념에서 벗어나 근대적 회화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동양화 작품이다. 직사각형 화면과 제발이 사라진 점, 일상의 소박한 자연 경치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점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감상 포인트: 근대기의 새로운 여인상**

• 나혜석의 《자화상》과 김기창의 《정청》 비교 감상

- 1) 한복 차림에 고무신을 신은 여인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모습과 현대적인 의상에 짧은 머리를 한 모던 여성의 모습이 공존했던 근대기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김기창이 21살 되던 해인 1934년 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한 작품이다. 김기창의 첫사랑이었다고 하는 이소제라는 여인과 김기창의 여동생 기옥이 등나무로 만든 소파에 앉아 현대식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조용히 듣고 있는(정청, 靜聽)' 모습을 그린 것이다. 훗날 이 작품이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상했을 때 폐병을 앓고 있던 이소제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고 한다.



● 오지호 / 남향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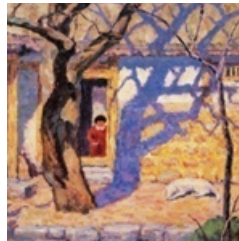
한국의 풍취를 우리만의 빛과 색채로 표현해 낸 오지호는 한국의 자연을 바탕으로 유화 수용과 인상파적 표현 기법을 도입하여 한국 유화의 이론적 틀을 완성하였다. <남향집>은 이러한 오지호의 토착화된 인상주의 화풍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나무와 돌 축대의 그림자 부분이 청색과 보라색으로 처리된 것에서 그 인상파 회화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감상 포인트: 인상파 회화의 그림자 빛깔**

- 모네의 인상주의 회화와 비교 감상
  - 그림자를 검은색 대신 푸른색이나 보라색으로 처리한 모네의 그림과 유사점을 찾아본다.



모네(Monet, Claude/프랑스/1840~1926) 건조 더미 (캔버스에 유채/60x100cm/1891년 작)



오지호(한국/1905~1982) 남향집(캔버스에 유채/80x 65cm /1939년 작)

**현대 미술(1945~현재)**

● 이중섭 / 아이들

피난 시절 회화 재료가 부족했던 상황 속에서, 이중섭은 담뱃갑 속 은박지에 그림을 새긴 은지화를 제작했다. 은지화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이중섭의 아들(두 아들이 있었음) 이라고 볼 수 있는 소년들인데, 그가 가족과 헤어져 언제나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담뱃갑 속의 은지가 재료였기 때문에 크기가 매우 작은 작품이지만 독특한 색깔과 질감으로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 박수근 / 세 여인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박수근은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노상과 장터의 사람들을 가난과 고통이 아닌 애정 어린 눈길로 화폭에 담아냈다. <세 여인> 역시 박수근 특유의 소박한 인물과 한국적인 풍경을 두터운 질감과 원근이 없는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감상 포인트: 재료의 본질과 추상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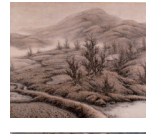
김종영의 다른 조각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무제>와 같은 추상 조각의 느낌과 특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 김종영 / 작품 79-15

깎지 않고 재료와 형태의 본래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불각' 사상을 담은 대표작이다. 한국의 추상 조각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김종영은 돌, 나무, 금속을 재료로 하여 유기적인 생명감과 내면적인 정신성을 담아내는 조각 작업을 선보였다.

**근대 미술 | 서양화의 도입과 근대 회화의 시작**

대한 제국기(1897~1910)와 일제 강점기(1910~1945)에 우리의 근대 미술은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서구의 다양한 미술을 수용하며 근대 회단의 기틀을 다졌다.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은 비롯하여 구본웅, 나혜석, 오지호 등은 개성 있는 화풍을 발전시켰고, 이상범, 노수현, 변관식 등은 전통 화법의 변화를 모색하여 근대적인 수묵 산수화를 전개하였다.



이상범(한국/1897~1972) 초동도(종이에 수묵 담채/753x185cm/1920년) 원동 산수(화에서 볼 수 있는 제문이나 발로에 있고 일상의 시골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전통적인 서화 개념에서 벗어난 근대 회화의 면모를 보여 준다.



나혜석(한국/1896~1948) 자화상(캔버스에 유채/60x 48cm/제1차 연도 미화)



오지호(한국/1905~1982) 남향집(캔버스에 유채/80.5x65cm/1939년 작)



강기생(1913~2001) 장황(미단에 채색/15.9x13.4.5cm/1934년 작)



김중영(한국/1907~1967) 물동이를 띤 여인(나무놀이/128cm/1940년 작)

**현대 미술 | 세계와 함께, 세계를 이끌며**

광복 후 한국의 미술계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하면서 우리 고유의 정서를 표현한 한국적인 현대 미술을 발전시켰다.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등이 다진 현대 회화의 기반 위에 1960~70년대에는 비정형의 추상 회화와 한국적인 단색화가 발전하였다. 전통적인 한국화 또한 전통의 기반 위에 새로운 형식 실험을 시도하였고, 조각 역시 추상 조각이나 용접 조각 등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이중섭(한국/1916~1956) 아이들(은지화/9x5cm/1950년 작) 6-25 전쟁 당시 부산 피난 시절 회화 재료가 없어 담뱃갑의 은지에 불필요하게 그려진 것으로 해어진 가운뎃대 그림이 담겨 있다.



박수근(한국/1914~1965) 세 여인(캔버스에 유채/16.5x 33.5cm/1960년 작)



김중영(한국/1915~1982) 작품 79-15(돌/48x31x14cm/1979년 작) 동양의 불각(不刻) 사상을 바탕으로 인위성을 배제하고 재료와 형태의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독창적인 추상 조각이다.



64-3, 자각상(나무/26x16cm/1964년 작) 무제(대리석/23x25x13cm/1970년대초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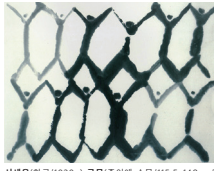
● 서세옥 / 군무

서세옥은 정통 동양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회화 방법을 시도하였다. '인간' 시리즈 중 하나인 군무는 몇 개의 단순한 선으로 사람의 형상을 표현하며, 함축적이고 단순화된 인간의 형상과 묵법의 기운이 빛어내는 특유의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

● 오윤 / 피로

현대 관화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오윤은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갖고 민화, 무속화, 불화, 탈춤 등 한국 전통의 민중 문화를 연구하여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해학과 민중적 신명을 날카로운 칼맛을 통해 담아낸 오윤의 목판화는 민중의 삶과 애환을 표현한 민중 미술을 대표한다.

1980년대 사회 참여적인 민중 미술에 이어 1990년대 이후에는 다원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확산되어 현대의 과학 기술과 뉴 미디어를 사용한 다양한 미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세옥(한국/1929~) 권우(종이에 수목/115.5x148cm/1988년 작)



오윤(한국/1946~1986) 피로(종이에 목판/24.1x34cm/1982년 작)



최우람(한국/1970~) 우나 루미노(종이, 전등기 LED 등불이 50cm/2008년 작)



이동기(한국/1967~) 국수를 먹는 아토마우스(캔버스에 아크릴/30x46cm/2003년 작)



김수자(1957~한국) 보따리 트럭 이주자(영상 재민 비디오/9만 17초/2007년 작)

### 탐구 활동 1 조선 후기 문인화와 선비 정신 알아보기

이 그림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인 화가 김정희의 <세한도>이다. 그림 우측 상단에 적힌 제목의 ‘寒(세한)’은 ‘추운 계절이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는 <논어>의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김정희는 이 그림을 언제, 어떤 이유로 그렸을까?



김정희(조선/1786~1886) 세한도(종이에 수묵/23x61.2cm/1844년 작/국보 제80호)

- ① “추운 계절이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 ② 그림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 나무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자.
- ③ <세한도>를 그렸을 때 완당의 개인적인 처지는 어떠했는지 찾아보고, 당시 그의 심정이 이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감상문을 써 보자.

#### ▶ 점검해 보기

- 우리 미술의 혼용과 변천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 우리 미술 문화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는가?

83

### 감상 포인트: 21세기의 미술의 다양한 매체

우나 루미노, 국수를 먹는 아토마우스, 보따리 트럭을 비교 감상하며 21세기 미술의 다양한 재료와 매체, 자유로운 차용과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 최우람 / 우나 루미노

최우람은 고고학, 생물학, 로봇 공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형태의 움직이는 기계 생명체를 창조한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동·식물, 곤충들의 형태와 습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그의 기계 생명체들은 기계 문명 시대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로 이름 붙여진다.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한 키네틱 조각이다.

#### ● 이동기 / 국수를 먹는 아토마우스

이동기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이미지들은 대중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들을 결합한 것으로, 추상과 구상, 물질과 정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실재와 환상 등을 뒤섞는다.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 작가가 되고 싶다. 창조하지 않는 것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이동기는 기존의 이미지들을 선택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차용과 재창조의 작업을 진행한다.

#### ● 김수자 / 보따리 트럭 이주자

김수자는 캔버스와 물감, 붓의 한계를 넘어 천과 바느질을 이용한 오브제와 설치 미술, 퍼포먼스와 비디오 작품으로 영

역을 확장해 가며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영상 속 보따리는 펼쳐졌을 때와 싸매졌을 때, 또 장소에 따라서 여러 의미가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다. 보따리는 작가의 유년시절, 한국의 전통문화, 성년 시절의 끝없는 이주, 글로벌 시대의 이민자들에 이르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다.

### 탐구 활동 1 조선 후기 문인화와 선비 정신 알아보기

#### | 세한도 |

김정희는 일찍이 박제가의 가르침을 받아 복학파의 거두로 성장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업적을 이루었으며 추사체라 불리는 독창적인 서체를 창안해 냈다. 그러나 노년기의 삶은 오랜 시간 유배 생활을 하여 평탄치 않았는데, <세한도>는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역관이었던 이상적이 중국에서 귀한 책을 보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려준 그림이다.

### <탐구 활동의 예시>

- ① “추운 계절이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 여름에는 모든 나무의 잎이 푸르기 때문에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사철나무가 푸르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다른 나무들은 추위 때문에 나뭇잎이 말라 떨어지지만, 소나무와 잣나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자신의 푸르름을 유지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지만, 권력이 사라지고 나면 대부분 떠나 버린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알 수 있다고 한다.
- ② 그림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 나무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자.
  - 집 주변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는데,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 ③ <세한도>를 그렸을 때 완당의 개인적인 처지는 어떠했는지 찾아보고, 당시 그의 심정이 이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감상문을 써 보자.

단원	한국 미술의 여정
주제	<세한도>를 그렸을 때 완당의 처지와 심정
<p>이 그림은 완당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갔을 때 그린 그림이다. 벼슬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유배를 가니 찾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제자 이상적은 스승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책을 보내 주었다.</p> <p>추운 겨울은 김정희가 유배를 가 있는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제자 이상적의 변함없는 마음을 상징한다. 김정희는 자신을 잊지 않은 제자 이상적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세한도를 통하여 표현하였다.</p>	

# 19

## 동양 미술의 자취

교과서 pp. 84~87

<b>단원 설정 이유</b>	동양의 미술을 살펴보면 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의 특징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설정하였다.
<b>학습 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양 미술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한다.</li> <li>• 중국, 일본, 인도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미술과 우리나라 미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li> </ul>
<b>차시</b>	2
<b>학습 평가</b>	동양 미술의 변천과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미술 작품의 맥락적 해석 능력, 용어와 지식의 활용 및 소통 능력
<b>평가 방법</b>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보고서법,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 연구 보고서법
<b>교과 역량</b>	미적 감수성,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b>성취 기준</b>	9미03-01 / 9미03-02 / 9미03-03

### 교수 · 학습 과정

#### 도입

##### [동기 유발]

-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의 각 특징이 잘 드러나는 미술 작품을 제시하고 어느 나라의 작품인지 맞혀 보는 활동을 한다.

#### 전개

-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의 시대별 흐름과 미술 작품의 특징을 이해한다.
- 시각 자료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면서 동양 미술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의 작품을 우리나라의 작품과 비교 감상한다.

#### 정리

- 동양의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미술 작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표해본다.
- 주요 작품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지도상의 유의점

- 동양 미술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작품 감상을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미술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표현 활동과 연계하거나 시각 자료, 감상 학습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한다.
- 우리나라와 동양의 미술 작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감상의 즐거움

# 19

## 동양 미술의 자취

학습 목표

- 동양 미술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한다.
- 중국, 일본, 인도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미술과 우리나라 미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미술 ①-16

#### 생각 열기

일찍이 황하 문명과 인더스 문명을 중심으로 고대 문화의 기틀을 다진 아시아는 불교와 유교를 기반으로 서구와 다른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잦은 교류를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동양 미술의 자취를 살펴보자.

#### 중국 미술

광대한 대륙에 다채로운 미술 문화를 꽃피운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한자와 유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인도로부터 받아들인 불교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종이와 먹을 개발하여 기록 문화뿐 아니라 수묵화와 사예 등 동양 특유의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정교한 청동기가 발전한 선사 시대와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 전한 시대(기원전 221~220)에는 대규모 진시황릉과 만리장성이 축조되었고 유교적인 주제를 담은 분묘 미술이 등장하였다. 이어 위·진 남북조 시대(220~589)에 북조는 둔황 석굴, 원강 석굴 등의 불교 미술을 발전시켰고, 남조에서는 유교를 바탕으로 회화와 사예가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당 시대(618~907)에는 궁정 회화와 청록 산수화 외에 수묵 산수화가 출현하였으며 화려한 당삼채 도자기가 제작되었다. 한편, 중국 회화의 전성기를 이룬 오패와 송대(907~1279)에는 휘종 황제의 장려로 궁정 회화가 크게 부흥하였고, 이성, 발관, 광희, 미분, 미우인 등의 산수 화가가 활약하였다.



진시황릉 병마용(경도/토용 높이 약 190cm)인 양(3/194년 송토)



니더를 탄 익사물(당삼채/높이 66.5cm/8세기 작품)



빙관(빙관/중국/7~1027) 계산행려도(도리안대 수묵/206.3x103.3cm/11세기 작품)



미분(미분/북송/1051~1107) 혼산서송도(공미에 수묵 단채/25x44cm/북송)

84

### 감상 포인트 및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중국 미술:** 동양 문화권의 기반을 마련한 중국의 다채로운 미술의 흐름을 감상하고 서구와 다른 중국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한다.

#### ● 진시황릉 / 병마용

중국 최초의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를 세운 진의 황제 진시황은 아방궁과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한편 자신을 위한 거대한 능묘를 건립하였다.

1970년대 진시황릉의 동쪽 능도에서 발견된 병마용갱은 무덤을 지키는 병사와 말 소조상 8,000여 개가 매장되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인해 '세계 제8의 불가사의'라 불린다. 흙으로 빚은 실물 크기의 병마용 모두가 제각기 다른 자세와 표정, 복장, 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 매우 다채롭고 지극히 사실적이다.

**감상 포인트:** 병마용 조각의 생생한 사실주의를 실감할 수 있도록 병사들의 개성 있는 얼굴과 자연스러운 손동작, 각기 다른 의복을 보여 주며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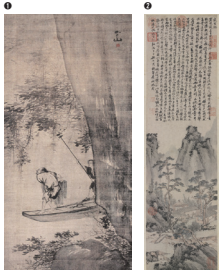
몽고족이 중국을 지배한 원(1271~1368) 제국 시기에 중국의 문인 화가들은 당국의 한을 수복 산수화와 복고주의적 화풍에 몰두했다. 특히 조맹부는 옛것을 숭상하여 학자적인 시정(詩情)이 담긴 고졸한 문인 산수화의 길을 열었으며, 그의 영향 하에 오진, 황공망, 예찬, 양몽 등 원시대가라 불리는 문인 화가들의 산수화가 유행하였다.



**조맹부**(趙孟頫/원/1254~1322) **작화추색도**(종이에 수묵/학견의 부분/1295년 작)원 산수화의 고졸한 양식과 북송의 고요한 강산 산수화 양식을 조화시켜 원사 대가의 문인 산수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세해만 다녀 고졸(古拙)을 담은 말 그림으로도 명성을 떨쳤다.



**예찬**(倪瓚/원/1301~1374) **용수 계도**(종이에 수묵/74.7x35.5cm /1372년 작)원 탈속을 상징한 빈 장자를 그린 이 그림은 고야하고 간결한 문인화의 대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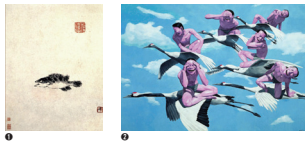


**● 절벽명경**(명/1454~1538) **여부도**(비단에 수묵/730x69.2cm/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원 일본 교왕초사소장. 극강한 필선을 대담한 구도를 사용한 명대 절벽의 대표작이다.

**● 심후**(沈周/명/1427~1509) **여희도**(종이에 수묵/84.8x21.8cm/1492년경) 같은 명 사색에 정인 자신의 모습과 생각을 담백하게 표현한 문인화로 오묘한 향기된 심부의 높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한족이 나라를 되찾은 명(1368~1644)에서는 자급성과 같은 거대한 공필이 축소되고 궁정 중심의 미술이 꽃피면서 화려한 청화 백자가 유행할 수 있었다. 과감한 필선을 사용하는 전기의 절파 화풍과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후기의 오파 화풍이 발전하여 조선 시대의 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1644~1911) 또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을 적극 장려하였다. 전통 문인화풍이 유행하여 석도나 팔대산인 등이 개성 있는 수묵화를 발전시켰고 후기에는 서양에 문화를 개방하며 서양 화풍을 도입하였다. 20세기 들어 극렬한 변화를 겪은 중국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서양 문명의 충격과 영향을 반영하는 다양한 현대 미술을 선보이고 있다.



**● 골대산인**(大山山人/중국/1626~1705) **청산 물고기종이**(종이에 수묵/31.7x27.5cm/1694년 작)원

**● 화단명승**(名勝圖/중국/1962년) **학봉**(학봉산에 유채/200x280cm/1992년 작) 입을 크게 벌리고 박진감 넘치는 화가 자신의 모습을 반복해서 그리는 웨민첸의 그림은 복잡한 역사와 현상에 대한 혼란스런 심리를 마음과 조율으로 표현한 것이다.

**● 장어장수면 높이기**(長魚場水면 높이기/대만/1979년 작) **웨이장**



## ● 미불 / 춘산서송도

북송대 문인화를 개척한 미불은 '미점'이라고 하는 굵은 점을 가로로 눕혀서 찍듯이 그리는 '미법산수'를 새롭게 창안하였다. 미법산수는 여백을 활용하며 붓질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나 품격이 있는 산수를 그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법이다. 미불의 정갈하면서도 기품 있는 산수화는 섬세한 기교에 치중하지 않으면서 서정적인 시정이 넘치는 문인 화적인 감성을 느끼게 한다.

### 감상 포인트: 원대의 복고주의적인 문인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전 영토가 북방 민족인 몽골족에 들어간 시기인 원대에 강남에 은거하던 한족 문인들에 의해 복고주의적인 문인화가 크게 성장하였다. 지평선이 낮은 평원 산수를 서예 기법으로 처리하여 서예와 회화의 일치를 추구하는 문인화 정신을 담고 있는 조맹부의 작품과 세속을 떠난 탈속의 경지를 펼친 분위기 안에 담은 예찬의 그림을 비교 감상한다.

## ● 조맹부 / 작화추색도

맹부가 고향인 호주(오늘의 절강성 오흥)에서 산동성 제남 시 북쪽의 작산과 화산 일대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과거 남송대와 당대의 한족 문화를 그리워하는 복고주적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서예적인 기법과 청록 채색으로 문인의 이상향을 그려놓고 있다.

## ● 예찬 / 용수계도

예찬은 강남의 거부 가문 출신으로 문인들과 교류하며 서화를 베푸는 안일한 생활을 하였으나, 원 말기에 모든 재산을 농민에게 나누어주고 태호(太湖), 동정호(洞庭湖)에서 도롱이와 삿갓을 입고 배 한 척에 의지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의 산수화는 주로 태호 주변의 풍광을 표현하였는데, 토파와 수목이 있는 근경과 먼 산이 낮게 펼쳐진 원경 공간에 넓은 호수를 그려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간결하고 담백한 필묵법으로 명·청대 문인 화가의 추앙을 받았다.

### 감상 포인트: 재미있는 중국 현대 미술

〈장어장수면 높이기〉와 같이 창의적인 발상과 협업이 돋보이는 중국의 현대 미술을 감상하며 미술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본다.

## ● 웨민첸 / 하늘

중국 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이다.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를 드러낸 채 박장대소하는 특유의 인물 캐릭터를 반복해서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언뜻 유머러스하게 보이는 이 웃음은 중국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야기된 개인적, 사회적 혼란에 대한 반항과 슬픔, 분노, 체념이 뒤섞여 있어 역설적인 웃음이라 할 수 있다.

## ● 장 후안 / 장어장수면 높이기

중국의 현대 미술가로 중국인으로써의 뿌리와 새로운 장소의 관계를 그려내며 행위 예술과 작품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작품은 중국 곳곳에서 베이징으로 일을 하기 위해 이주해

### 감상 포인트: 북송대 화북산수와 문인화 비교 감상

1. 화북의 거대한 산봉우리들이 구름과 안개 속에서 괴리감 있게 드러난 모습을 담은 범관의 수묵 산수화와 세밀함 대신 여백의 미와 서정적인 시의를 살린 미불의 문인화풍 산수화를 비교 감상하며 느낌을 이야기한다.
2. 범관의 〈계산행려도〉와 미불의 〈춘산서송도〉를 비교 감상하며 조형적인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본다.

## ● 범관 / 계산행려도

범관의 그림은 중앙에 괴리감 넘치는 산을 배치하여 장대한 산수의 위용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그림으로 인해 거비파(巨碑派)산수라 불린다. 거대한 산 위에 관목들이 자라는 것이 특징이며 산의 표면에 가늘고 짧은 우점준을 촘촘하게 사용하였다. 중앙의 높은 산을 중심으로 거대한 산수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장엄한 자연 속에 인물을 매우 작게 그리는 화북산수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은 공사장 인부들, 어부, 그리고 육체 노동자들 등 사회의 바닥 계층 40여명을 모아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연못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물에 들어가는 퍼포먼스 작품이다.

**일본 미술:** 삼나라 일본이 중국, 한국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흡수하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미술 문화를 형성했는지 작품 감상을 통해 이해한다.

● **교류지 목조 미륵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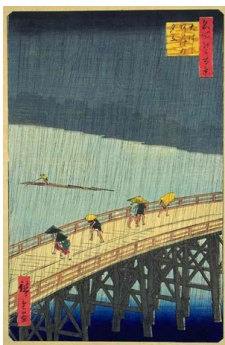
현재 일본신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는 불상은 우리나라의 국보 83호인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과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일본의 초기 불상은 몸의 각 부분을 각각 여러 개의 나무로 만들어 조립한데 반해 이 상은 한 토막의 나무 전체를 조각했고, 재료 또한 일본의 노송이 아니라 신라 지역에서 많이 자라난 적송이어서 아마도 우리나라 삼국 시대의 불상이 교류지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가쓰시카 호쿠사이 / 후지산 38경-카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일본 에도시대에 활약한 목판 화가로 다색 목판화인 우키요에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이 그림은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치고 사공들은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는 모습으로, 채색 목판화 시리즈 《후지산 36경》 중 《카나가와의 거대한 파도》이다. 이 작품은 후에 마네와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과 반 고흐, 고갱 등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감상 포인트: 일본 목판화를 사랑한 반 고흐**

일본 목판화의 단순하고 강렬한 디자인을 사랑했던 반 고흐는 히로시게의 목판화를 그대로 옮겨 그리기도 했다.



히로시게, 아타케모하시 다리의 소나기(목판화/37x25cm/1857년 작)



반 고흐, 비오는 날 다리(캔버스에 유채/73.3x53.8cm/1887년 작)

● **료안지 돌정원**

료안지는 일본 교토에 위치한 선종 사원이며, 가마쿠라 시대에 전해진 중국 산수화의 영향을 받았다. 연못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흰 모래와 돌을 사용하는 '가레산스이(枯山水)'식 정원으로 15개의 돌이 놓여 있다. 이 돌들은 바다 위의 섬을 의미하며 우주와도 연결되는데,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한번에 14개 밖에 볼 수 없어 오직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15개의 돌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선종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일본 미술**

일본은 삼나라의 고유한 전통의 기반 위에 동아시아 대륙의 문화를 흡수하며 독특한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특히 6세기에 불교 미술이 전래된 이래 박승과의 교류를 통해 선종과 수묵화를 수용하여 문화를 완성하였고, 16세기에 유입된 서양 문화의 반작용으로 가부카나 우키요에 등 일본적인 미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의 파도(1760~1849) 후지산 36경-카나가와의 거대한 파도(목판화/24.5x35.5cm/1833년 작). 다채로운 파도의 위기에 있어도 태연한 동쿠사이의 서양의 풍경화와 같은 영향을 도입하여 격렬한 구도와 힘 있는 필선을 구사한 풍경 변화를 개척하였다. 우키요에는 19세기 유럽에 전해져 인상파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요시토모 나라(奈良美術/일본/1959-) 잠 못 이루는 밤(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110x120cm/1997년 작) 요시토모 나라는 일본의 만화와 미국의 팝 아트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캐릭터를 창조하였다.



교류지 목조 미륵반가사유상이 125cm(747경)인 스카시 시대 신라의 금동 미륵반가사유상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삼국 시대의 불교 미술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신라교 체제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한 불상이다.

**인도 미술**

인적이 힌두교와 불교의 발생지이자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동서양 교류의 주요 지점이었던 인도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미술을 꽃피웠다.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간다라 불상과 인도 고유의 마투라 불상은 동아시아의 불교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2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불교와 힌두교 미술이 쇠퇴함에 따라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무굴 제국 시대에는 궁전과 사원 등의 건축이 융성하였다.



① 산치 대탑(기원전 3세기경-기원후 12세기)  
 ② 부처의 발자국(기원전 4세기경)  
 ③ 부처의 발자국(높이 120cm) / 2세기경(간다라 지역)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불교 조각을 대표한다.  
 ④ 아난타 제 1비굴 보살상(크레스코 벽화(462~500년경) 금타조)  
 ⑤ 출구는 생명의 76cm(19세기) 출라 알코  
 ⑥ 타지마할(1631~1642년 무굴 제국) 황비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타지마할은 무굴 왕조의 왕비 왕비를 추모하여 세운 무굴로 궁전이며 장례터가 배어낸 아름다운 건축의 정수이다.

**탐구 활동**  
**동양 미술 알아보기**

- 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언제 어떻게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었는지 찾아보라.
- ②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부처 조각상을 조사해 보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을 발표해 보라.

● **요시토모 나라 / 잠 못 이루는 밤**

일본 네오 팝 세대의 대표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는 항상 순진해 보이면서도 악동 같은 표정의 어린 아이와 귀여운 동물들이 등장한다. 일견 귀엽고 순진해 보이지만, 현대인의 내면에 감춰진 두려움과 고독함, 반항심 등의 감정을 미묘하게 포착해 낸다. 작가 자신의 어린 시절 외로웠던 경험과 청소년기의 저항을 표현한 독특한 캐릭터를 창조한 것으로 일본 만화와 미국의 팝 아트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미술:** 불교의 발생지이자 동서양 문화 교류의 주요 지점이었던 인도의 미술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작품 감상을 통해 이해한다.

● **산치 대탑**

인도에 현존하는 탑 중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불탑이다. 이 탑은 인도 초기 불교 스투파의 전형이며, 특히 중인도 스투파의 형상과 구조를 대표한다. 대탑의 직경은 약 36.6미터, 높이는 16.5미터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 **부처의 발자국**

인도 안드라주 아마라바티에서 출토된 것인데, 안드라 지방은 간다라, 마투라와 더불어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4세기 초까지 인도 불교 미술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부처는 태어나 자마자 연꽃 꽃봉오리에서 걸어 내려왔다고 전해지는데 붓다가 발을 디딘 곳마다 연꽃이 피어났다고 하여 여러 곳에서 돌

**동남아시아 미술**

동남아시아는 타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대륙 일부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르는 섬 국가들을 지칭한다. 아시아의 동남부에 위치한 이 나라들은 일찍이 인도의 종교 문화와 중국의 한자 문화를 수용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특히 힌두교와 이슬람교 및 불교가 융성하여 거대한 종교 건축물과 조각이 발전하였다.



앙코르 와트(12세기 초/캄보디아) 1개의 중앙 사원과 5개의 탑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사원 유적이다. 수백년 동안 캄보디아의 깊은 정글에 감추여 있던 이곳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탐험가가 처음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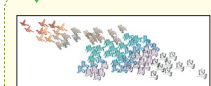


보로부두르 사원(9세기 후반~10세기 전반/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의 불교상은 균형잡힌 신체의 부드러움과 우아한 표현이 두드러져 인도네시아 미술의 고전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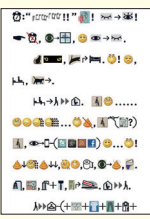


앙코르 동의 바이론 사원의 안면상(13세기 전반/캄보디아) 20미터 가 넘는 대형 안면상들은 바이론 사원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다.

**미술거리** **쉬빙의 '살아 있는 글자' - 그림과 문자의 만남**



'세계를 뜻하는 글자가 책 속에서 나와 하늘로 날아오른다. 세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진 상형문자 '鳥'가 다시 새겨 되어 날아가는 듯한 광경이다. 중국의 한때 미술가 쉬빙(徐冰)은 이렇게 한자의 변형을 행할수록 시각 미술로 보여 준다. 문자는 예로부터 그림과 깊은 관련을 지녀왔음을 생생한 설치 미술로 전달하고 있다. 쉬빙은 21세기의 문자 역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기호나 야이론을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그림 기호만으로 이루어진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쉬빙(중/중국/1955-) **지세(地世)**(2013년 작) 2003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는 그림 기호와 야이론 및 이코노믹 등을 모아 온 쉬빙이 그림 문자만을 사용하여 만든 책이다.

쉬빙(중/중국/1955-) **살아 있는 글자**(아크릴에 채색/가변 크기/2001년 작)

**▶ 장면에 보기**

- 동양 미술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
- 다양한 아시아 미술과 우리 미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에 새겨진 붓다의 발자국을 볼 수 있다. 연꽃의 씨앗은 천년 후에도 싹을 틔운다고 전해져 아름다움과 영원을 상징한다. 부처를 인간의 형상으로 조각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부처의 발자국으로 그의 가르침을 표현했다.

**● 부처 입상**

그리스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을 받은 인도 간다라 미술을 대표하는 불상이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간다라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 그리스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을 받은 사실적인 불상이 출현한 후 수세기 동안 간다라 양식이라 불리는 불교 미술이 융성하였다. 장발의 곱슬머리, 깊은 눈과 오흘한 콧대, 물결치는 듯한 옷주름 등은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이다.

**● 타지마할**

타지마할은 인도 이슬람 건축의 가장 완벽한 걸작으로 무갈 건축의 왕관이라 불린다.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채석과 반보석, 4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채석장에서 실어온 백색 대리석 등으로 화려한 낙원의 이미지를 강조한 타지마할은 공사 기간 동안 매일 2만여 명의 기술자와 인부들을 고용하여, 모두 4천만 루피의 자금을 사용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설계의 측면에서는 수학적 계산의 정밀함과 기하학적 구조의 균형, 광학 효과의 변화를 강조하였고, 심미적으로는 화려하고 진귀하면서도 엄숙한 찬란함과 수정 같은 순수함과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동남아시아의 미술: 힌두교와 이슬람교 및 불교가 공존하는 동남아시아 미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 앙코르 와트**

캄보디아에 소재한 앙코르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앙코르 와트는 전반적으로 인도의 영향도 받아들여지는 하였지만 건축의 형태나 석조 장식 등에서 앙코르 왕조의 독자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앙코르 왕조는 13세기 말부터 쇠망하기 시작하여 15세기경에 멸망하였고 이후 정글 속에 묻혀버렸다. 그러다 1861년 표본채집을 위해 정글에 들어간 프랑스 박물학자가 이곳을 발견함으로써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 보로부두르 사원**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으로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미얀마의 바간과 함께 세계 3대 유적으로 꼽힌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아지는 피라미드형 구조이며 단 위에는 벽면을 따라 불교 이야기와 당시 사람들의 삶이 표현된 천 개가 넘는 조각상들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 탐구 활동 1 동양 미술 알아보기**

**① 불교의 전파에 대해 찾아보자.**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인도에서 출현한 불교는 기원후 1세기 경 중국 한나라에 전파되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불교를 수용하였는데, 고구려는 372년 중국 북조의 전진으로부터, 백제는 384년 중국 남조의 동진으로부터, 신라는 5세기경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한편 6세기 중엽 백제의 성왕은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다. 불교는 주로 승려들을 통해 불경과 불상이 소개되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②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 조각의 특징을 살펴보자.**

인도의 간다라 불상, 중국 당대 룬문 석굴의 비로자나 불상, 우리나라 통일신라 석굴암의 본존불상, 일본 아스카 시대 호류지 금동관음보살입상 등을 비교 감상하며 각 나라의 특징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본다.

**■ 지식 참고**

**• 쉬빙 / 살아 있는 글자**

중국의 설치 미술가이자 서예가인 쉬빙은 중국의 오랜 문자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살아 있는 글자'는 전통적인 활자를 살아 움직이는 그림 문자가 되도록 구성된 설치 작업으로, 문화 변동과 재구성의 가능성을 실험함으로써 문자 전통과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게 한다.

**• 쉬빙 / 지서**

쉬빙이 7년여에 걸쳐 완성한 책이다. 이 책은 각국의 심볼과 기호 2,500여 개만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하나도 없는 책으로 문맹자도 읽을 수 있으며, 기호가 내포하는 의미를 독자가 스스로 추적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읽는 사람에 따라, 또 읽을 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형식의 책이다.

<b>단원 설정 이유</b>	서양 미술을 살펴보면서 세계의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의 특징을 탐구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b>학습 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양 미술 문화의 흐름과 변천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li> <li>• 서양 미술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고 시대별, 지역별 양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li> </ul>
<b>차시</b>	4
<b>학습 평가</b>	서양 미술의 변천과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미술 작품의 맥락적 해석 능력, 미술 용어와 지식의 활용 및 소통 능력
<b>평가 방법</b>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보고서법, 연구 보고서법, 관찰법, 토론법
<b>교과 역량</b>	미적 감수성,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b>성취 기준</b>	9미03-01 / 9미03-02 / 9미03-03 / 9미03-04

### 교수 · 학습 과정

#### 도입

##### [생각 열기]

- [생각 열기]에 제시된 그림과 내용을 이용하여 서양 미술의 역사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입한다.

#### 전개

- 서양 미술의 주요 흐름을 세계사의 맥락적 흐름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시대별, 지역별 양식의 특징을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작품을 소개하고 핵심 미술 용어와 다양한 배경을 설명한다.
- 서양 미술의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단독 감상 및 비교 감상을 진행하고 자유롭게 토론한다.

#### 정리

- 작품 감상 후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해 본다.
- 각 시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미술사적 특징을 주요 단어나 간단한 문장으로 서술해 본다.

### 지도상의 유의점

- 작품을 감상할 때 지나치게 설명적이거나 암기 위주의 학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대별 미술 사조의 배경과 사회 제도, 지리적 환경에 따른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준비한다.
- 20세기 이후 서양 미술은 다양한 사조가 등장하기 때문에 사조에 해당하는 설명과 특징을 요약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감상의 즐거움

# 20

## 서양 미술의 모험

**학습 목표**

- 서양 미술 문화의 흐름과 변천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서양 미술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고 시대별, 지역별 양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미술 ① - 16

**생각 열기**

**미술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

많은 화가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술 작품을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변형시켜 왔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어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재창조'라 하는데, 미술의 역사는 바로 끊임없는 재창조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로의 그림도 그런 예이다. 미로가 그의 그림에서 17세기 네덜란드 풍속화를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살펴보고, 무엇 때문에 그의 그림이 과거의 회화보다 한층 독창적이고 개성 있어 보이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



**소르그**(Sorbus, Hendrik Martenszoon 네덜란드 1610~1670년) **루트 연주자미로** (대형에 유채 91.5×85.5cm/1669년)



**미로**(Miro, Joan Miró 1893~1983년) **네덜란드 실버백스의 유채**(91.8×73 cm/1938년 작)

**생각해 보기**

피카소의 이 그림은 과거의 어떤 작품을 재창조한 것일까?  
=> 책에서 찾아보자.



**피카소**(Picasso, Pablo Picasso 1881~1973년) **시녀들** (앤버스에 유채 194×260cm/1957년 작)

### 감상 포인트 및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 생각 열기를 위한 감상 포인트

1. 비교 감상: 미로의 그림과 소르그의 그림을 보여 주며 유사점을 찾아보게 하고 미로가 소르그의 그림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2. 피카소의 그림을 크게 보여 주고 교과서에 실린 어떤 그림을 변형한 것인지 찾아보게 한다.
3. 미로나 피카소의 그림이 왜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면서 재창조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헨드릭 소르그 / 루트 연주자미로 / 네덜란드 실녀

17세기 네덜란드의 풍속화인 소르그의 그림을 후양 미로가 초현실주의적인 기법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변형시켜 재창조하였다. 특히 미로는 무의식적인 잠재의식과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자동 기술법(오토마티즘)을 활용하여 소르그의 인물과 동물들을 기묘한 형태로 변형시켰다. 사실적으로 그려졌던 대상의 형태와 비례를 자유롭게 변형시켜 환상적이면서도 생기와 유머가 넘친다.

#### ● 피카소 / 시녀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1656)을 재창조한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서양의 미술은 선사, 고대, 중세, 근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이 발전하였다. 특히 20세기에는 추상 미술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미술이 출현하여 실험적이고 다양한 현대 미술이 융성하였다. 역동적으로 변화해 온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자.

**선사 시대 | 수수께끼 속의 미술**

문자가 없었던 선사 시대에 인류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인류는 어떤 이유로 조각과 회화 및 거석 구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선사 시대의 미술은 주술이나 제의적인 목적을 지닌 것으로 추측되지만 최초의 미술이 왜 탄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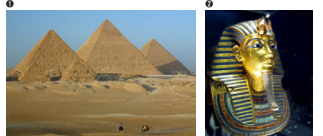
**스톤헨지** (경도: 높이 4.5m, 폭 29.5m) 기원전 2000년경, 선사 시대 영도 남서부에서 선사 시대에 어떻게 거대한 돌을 운반했는지는 아직도 불거사이에 속한 다. 최근에는 위 거대 구조물이 태양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일종의 천문대였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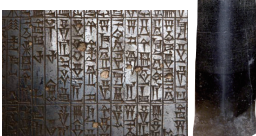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석회암 높이 1.1cm) 구석기 시대 손 안에 들어올릴 정도의 작은 크기의 조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미술 | 고대 문명의 탄생**

대표적인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으로 인해 매우 상이한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집트가 파라오의 불멸을 기원하는 피라미드와 미라 등 무덤 미술을 발전시켰다면, 현재의 중동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현실적인 법전과 신전 건축이 융성하였다.



● **기자의 피라미드** (기원전 2500~2470년경)  
● **투탕카멘 왕의 장례 마스크** (이집트 상경한 금과 보석 높이 183.1cm) 기원전 1340년경



**황무리에서 발견된 세계의 석판과 제기 문자** (높이 213cm) 기원전 1760년경  
바빌로니아의 황무리에서 발견된 제기 문자로 법전을 새겨 인류 최초의 상문법인 황무리법 법전을 남겼다.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 | 서양 문화의 뿌리**

서양 문화의 직접적인 뿌리인 그리스 미술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고전주의의 완성이 되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미술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포세이돈(정통)** (높이 208cm) 기원전 460~450년경, 균형, 비례, 조화가 뛰어난 그리스 조각의 이상적인 사실주의 이후 고전주의의 범례가 되었다.



**콜로세움** (로마) (지장 길이 188m, 폭은 폭 156m, 둘레 527m/72~80m) 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황금 경기장인 콜로세움은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오늘날의 스타디움 건축에도 응용되고 있다.



실제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보고, 이 작은 조각상은 무슨 역할을 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라스코 동굴 벽화, 구석기 시대/기원전 15,000년경.

● **기자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무덤으로 신과 같은 파라오의 영생을 위해 지어졌다. 피라미드 내부에 미라가 있는 작은 매장실이 있는데 무거운 석회석 돌덩어리를 견디기 위해 고도의 기술과 노동력이 동원되었다.

● **투탕카멘 왕의 장례 마스크**

투탕카멘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된 유일한 왕묘로 그 가치가 높다. 3,000년 만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무덤 안은 온통 황금 더미로 둘러 싸여 있었으며 황금으로 장식한 의자, 왕관, 벽면들 그리고 3개로 포개진 관 속에서 가장 안쪽에 있던 왕의 미라를 감싼 황금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황금 부장품이 부장되어 있었다. 이 무덤이 발견됨으로써 파라오의 장례 절차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선사 시대 미술과 고대 문명의 탄생:**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선사 미술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미술의 차이를 감상하고 이해한다.

**감상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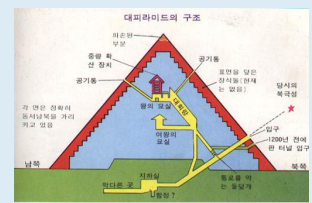
1. 선사 시대의 미술의 경이로움: 제대로 된 도구는 커녕 생존 자체도 힘들었던 구석기인들이나 신석기인들이 어떻게 것처럼 놀라운 동굴 벽화, 조각, 거석 유적을 남겼는지 여전히 수수께끼 끼임을 강조하며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고대 문명의 세계관을 담은 미술: 고대 문명은 문자의 창조, 종교와 정치 제도의 등장, 국가의 탄생 등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문명 발생지의 자연환경 및 종교와 관련된 미술 문화가 발전한다.

●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1909년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된 이 조각도 그중 하나이며, 생존과 번식이 중요했던 그 시기에 다산을 염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조각상의 정확한 기능은 지금도 알 수 없다. 10cm 조금 넘는 크기이지만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강조하여 실제 크기보다 커보이는 느낌을 준다.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동굴 벽화도 함께 감상한다.

**탐구 활동 더하기**

- 피라미드의 내부는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을까?
- 미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람세스 2세의 미라**(부분) 기원전 1235년 경)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의 내부에는 왕과 왕비의 묘실이 있고 미라가 썩지 않도록 환기를 위해 공기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도구를 막기 위해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 미술 감상 포인트**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답게 조각된 그리스 조각을 감상하며 어떤 이유로 아름답게 보이는지, 즉 어떤 조형 원리로 인해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적에게 벼락(또는 삼지창)을 내리치는 순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앞으로 내디딘 왼쪽 다리가 체중을 지탱하고 있으며 오른쪽 다리는 신축성 있는 지구가 되어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콘트라포스트의 발전에 의해 조각가는 아무리 격렬한 움직임이더라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었다.

● 사모트라케의 니케

승리의 여신이라 불리는 니케의 조각상으로 헬레니즘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니케 여신이 뱃머리에 내려와 앉는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 바람과 바닷물로 인해 여신의 옷자락이 몸에 밀착된 채로 휘감아 올라가고 있어 생생한 느낌을 준다.

● 콜로세움

콜로세움은 네로 황제가 죽은 후 시내의 인공 연못을 메워 건축된 로마 최초의 오락장이자 공적인 행사 집행 장소, 검투사들의 격투를 관람하던 경기장이다.

약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이며 둥근 형태의 3층 건물로 그리스 건축 양식과 로마의 실용적인 건축 양식이 결합된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이곳에서 80년 도에는 백여 번의 경기가 열렸고 맹수 5천 마리가 죽었다고 전해진다.

**중세의 종교 미술:** 종교가 미술 문화뿐 아니라 정치, 사회, 학문 전체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1,000년 동안의 중세 서양 미술을 이해한다.

● 샤르트르 대성당과 스테인드글라스 장미창

유럽 대륙이 비교적 안정을 누렸던 12세기~14세기 동안 발전된 고딕미술의 대표적 예이다. 높은 아치형 천장을 받치는 산뜻한 골조와 좁고 높게 솟은 기둥, 넓어진 벽을 빼곡하게 메운 뾰족한 아치형 창, 창 안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선, 기둥과 함께 늘어진 침착하고 인자한 느낌의 인물 기둥 조각상 등에서 신앙심과 교회의 권위를 느낄 수 있다.

스테인드글라스 중 장미창이라 불리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수를 왕으로 묘사하였다. 인간이 작은 우주라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 장미창은 하나의 진리로 이어지는 깨우침의 문이라 볼 수 있다.

**중세의 미술 | 절대자를 향한 종교 미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15세기 중엽까지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서양의 미술 문화는 기독교 중심의 종교 미술이 융성하였다. 중세 미술의 황금기는 비잔틴 미술과 로마네스크 및 고딕 교회 건축에서 절정에 달한다.



샤르트르 대성당과 스테인드글라스 장미창(12세기 중반~13세기 초) 프랑스 샤르트르 고딕 건축의 벽과 사이라 불리는 샤르트르 대성당은 초기 고딕 양식의 정수를 보여 준다. 특히 영웅형 색채의 스테인드글라스는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대한 책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르네상스 미술 | 고대의 부활과 인문주의적 문화**

“재탄생”이라는 의미를 지닌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의 고대 문화가 재탄생하여 인문주의적 문화가 융성한 시기였다. 15세기 초 피렌체에서 시작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은 종교적인 내용과 고대의 고전 문화를 융합하여 이상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 북유럽에서는 자연 관찰을 토대로 하여 사실적인 세부 묘사가 두드러지는 회화가 주로 제작되었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의 조각(1475~1564) 아담의 창조(르네스크) 1508~1512년 작 비탄인 시스티나 예배실 율리아 님치는 황조주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순간을 그린 명화이다. 미켈란젤로의 역동적인 구성은 인간의 감정과 신의 숭고함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한 에이크(Hans Eyck, Jan)의 그림(1395년 1397~1441) 아름다운 부부의 초상(여성에 유채) 82x60cm(1434년 작)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지극한 세부 묘사가 돋보인다. 화면 중앙에 있는 거울에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모습이 반사되어 비치고 있다.

**더 알아보기 | 다빈치의 노트는 무엇이 특별한가?**

르네상스 거장인 다빈치는 엄청난 기록광이었다고 한다. 그는 생분, 지리, 천문학, 해부학에 관련된 그림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사색과 과학적인 설명 등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현재 7천 페이지 정도의 노트가 전해 내려오지만 실제로는 1만 5천 페이지 이상을 작성했다고 한다. 1994년 미국의 빌 게이츠는 36페이지 분량의 다빈치 노트를 3,100만 달러인 340억 원에 구입하여 그 내용을 연구하게 하였다. 다빈치의 기록을 창의적인 상상력의 모고라고 여겼던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그림(1452~1519) 왕국의 성모(마리아에 유채) 189.5x200cm(1495~1508년 작)



**르네상스 미술:** 중세가 끝나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미술 문화와 인문주의 사상이 다시 부활한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을 이해한다. 인간의 관심이 천상과 종교로부터 다시 지상과 현세로 내려오면서 미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감상하고 각자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감상 포인트**

3대 거장의 작품을 비교 감상하며 인체의 아름다움과 인간 중심 사상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였는지 비교해 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 리자(1503~1506) - 스푸 리자(1503~1506) - 스푸 미켈란젤로, 다비드(1501~1504) - 해부학적인 정교함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하여 인간을 신비로운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라파엘로, 세세 요한과 성모자(1504) - 균형 잡힌 구도와 친근한 모습을 통해 현세적인 성모자상을 표현하였다.

● 미켈란젤로 / 아담의 창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가로 교황의 명을 받아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렸다. 성서 내용의 역순으로 노아 이야기, 아담과 이브의 원죄와 낙원 추방, 아담과 이브의 창조,

**바로크 미술과 로코코 미술 | 절대 왕정과 귀족 사회의 문화**

바로크 미술은 17세기 절대 왕정 시대에 유럽 전역을 뚫어놓은 미술 사조로 강렬한 명암 대비와 생생한 묘사로 감동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양식이 특징이다. 종교 개혁에 맞선 로마 교황청의 반종교 개혁의 목적으로 시작된 바로크 미술은 프랑스, 스페인 및 플랑드르로



**카라바조**(Caravaggio, Michelangelo)의 **달리**(1513~1614) **성 도마의 의심**(1601년 작) 독일 포츠담 성서사관

확산되어 극적이면서도 웅장한 예술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바로크 양식과는 달리 우아하고 장식적인 로코코 미술은 18세기 프랑스와 중부 유럽의 귀족 계급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벨라스케스**(Velázquez, Diego Rodríguez de Silva y Goitia)의 **1799~1801** **세비야**(1661~1662) 유채(108.276cm/165.62cm) 프랑스인 물리학자 겸 철학자였던 벨라스케스는 마드리드와 궁중의 사람들을 담은 이 거대한 초상화에 자신의 모습 또한 중요하게 그려 놓았다. 보는 이가 마치 실제 공간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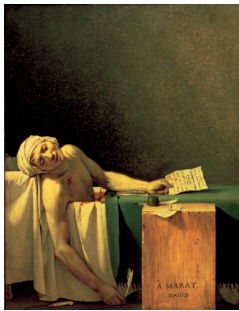
**프랑수아즈**(Fragonard, Jean-Henri)의 **프랑스**(1732~1816) **그네**(1781년) 유채(164.2cm/176cm) 당 작



**부세**(Boucher, François)의 **마담 퐁파두르**(1703~1770) **마담 퐁파두르**(1733년) 유채(72.5x57cm/175.8cm) 작

**신교전주의 미술 | 이성적 질서와 계몽주의의 원리**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신교전주의 미술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로코코 미술에 반대하고 이성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과 계몽주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신교전주의 미술은 프랑스 혁명의 애국적인 영웅과 도덕적인 주제를 영리한 고전주의 양식으로 표현하였다.



● **다비드**(David, Jacques-Louis)의 **프랑스**(1748~1825) **마라의 죽음**(1793년) 유채(165x128cm/179.3cm) 작



**세부** 프랑스 혁명의 급진주의를 대표했던 마라는 피부병으로 인해 목욕탕에서 집무를 보다가 중 앙상당했다. 다비드는 마라의 모습을 성스러운 순교자처럼 묘사하고 있다.



● **다비드**(David, Jacques-Louis)의 **프랑스**(1748~1825)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1784년) 유채(330x225cm/178.4cm) 작

하늘과 물의 분리, 달과 해의 창조, 빛과 어둠의 창조를 표현한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방주'라는 주제를 프레스코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4년 동안이나 지속된 천장 작업 탓에 목뼈가 기울어져 버렸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한 그의 그림은 르네상스 미술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그가 표현한 근육질의 인체는 그가 조각과 해부학에도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판 에이크 /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부유한 은행가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가 성스러운 결혼 서약을 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초상화이다. 플랑드르 지역의 북부 르네상스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예수의 존재와 축복을 상징하는 하나의 촛불, 충성을 뜻하는 강아지, 거룩한 순간을 상징하는 신발을 벗은 모습 등이 매우 치밀하고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 17~18세기의 미술 문화가 절대 왕정과 귀족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바로크 미술이 빛과 어둠의 대조를 극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의 내용을 생생하고 전달하고, 로코코 미술이 화려하고 장식적인 형식을 통해 귀족 사회의 취향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상을 통해 확인한다.

● **벨라스케스 / 시녀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초기에는 경건한 종교적 주제를 그렸으나 민중의 빈곤한 일상에도 관심이 많았다. 왕족부터 어릿광대, 난쟁이까지 구분 짓지 않고 모델로 삼아

담담한 필치로 묘사하여 인간 존재의 중요성과 본질적인 비극성까지 추구하였다. 공기의 두께에 의한 원근법이라는 혁신적인 표현 기법을 시도했던 그는 진동하는 빛의 파장과 대기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여 인상파의 출현을 예고했다고 평가받는다.

● **카라바조 / 성 도마의 의심**

성급하고 난폭한 성격이었던 그는 극단적인 해석과 충격적인 표현으로 주목받았다. 종교화를 주로 그렸지만 기적이나 성스러운 모습 보다는 일상을 배경으로 실제 사건인 것처럼 사실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와 제자들이 예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확인하는 그림으로,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명암의 극적인 대비와 어둠과 빛의 대조를 보여주는 이러한 사실주의적인 테네브리즘 기법은 17세기 전 유럽 화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부세 / 마담 퐁파두르**

인공적이고 화려한 느낌의 로코코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부세는 자연이 너무 침침하고 색이 짙다는 이유로 자연을 그대로 그리는 것을 거부했다.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마담 퐁파두르의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화려하고 정교하게 그린 작품으로, 그녀의 모든 초상화 중 가장 화사한 모습으로 꼽힌다. 이 시기는 그녀가 루이 15세의 공식 정부로 승인되고 난 후 공작부인으로 승격해 당시 여성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최고 권력에 올라섰을 때였다고 한다.

**신교전주의 미술과 혁명의 정신:** 절대 왕정과 귀족 사회를 무너뜨린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신교전주의 미술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감상을 통해 이해한다.

● **다비드 / 마라의 죽음**

다비드는 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는 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다. 그의 예술은 공화국의 선전을 위해 쓰였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격렬한 감동을 주고 조국에 대한 영광과 헌신의 씨를 뿌리는'데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다비드의 친구이자 급진주의 측의 대표였던 마라는 피부병으로 인해 욕탕에서 집무를 보다가 반혁명 분자에게 살해당했다. 다비드는 이 사건을 마치 현장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록하여 그림으로 남겼는데, 마라의 포즈를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속 예수와 흡사하게 표현하여 현대의 그리스도처럼 묘사하였다.

● **다비드 /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로마와 알바의 치열한 접전 끝에 각국에서 세 명의 대표 전사를 겨루게 하여 결판을 짓기로 하였다. 로마의 호라티우스 일가의 삼형제가 선출되어 싸움 끝에 승리하였는데, 호라티우스 가문의 딸 중 하나가 알바 가문의 한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통곡하며 전쟁에 나가는 오빠를 저주한다. 격분한

오빠는 그녀를 찢어 죽이고, 결국 로마의 엄격했던 법에 따라 친족 살인죄로 추방당한다. 이 그림은 절제된 색채와 긴박감이 느껴지는 화면 구성으로, 삼형제가 출전을 앞두고 아버지 앞에서 용감하게 싸울 것을 맹세하고 있으며 여인들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미술 비교 감상 포인트**

세 미술 사조의 대표 작품을 비교 감상하며 형식적으로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형식적인 차이점을 기반으로 하여 세 미술 사조의 사상적인 차이점을 설명한다.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1784) - 나라를 위해 헌신을 맹세하는 영웅적인 형제들을 표현. 프리드리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1818) - 송고한 자연을 마주한 방랑자의 감동을 표현. 쿠르베, 돌 깨는 사람들(1850) - 힘든 농동을 하는 사람들의 고된 삶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

**정열의 낭만주의 미술: 엄격한 이성을 강조한 신고전주의 미술에 반대하여 자유로운 상상력과 뜨거운 정열을 강조했던 낭만주의 미술의 양식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들라크루아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바리케이드 위에 서서 혁명과 사람들을 이끄는 자유의 이념을 여신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프랑스인 여성의 이상화된 모습이기도 하다. 프랑스 낭만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들라크루아의 역동적인 구도와 강렬한 색채를 확인할 수 있다.

● **프리드리히 /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프리드리히의 작품으로 자욱한 안개 바다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대자연에 홀로 마주 선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슬픔과 고독감뿐 아니라 인간 정신의 숭고함이 느껴지는 풍경화로 숭고미(the Sublime)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주요 작품이다.

**사실주의 미술 속의 현실과 자연: 현실과 자연을 이상화시키지 않고 농부와 노동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했던 사실주의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 **쿠르베 / 돌 깨는 사람들**

그 당시 유럽을 휩쓴 혁명의 영향을 받아 직접 경험하고 본 것만을 그리는 사실주의자가 된 쿠르베의 초기 작품으로,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 두 인부가 일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얼굴을 반대쪽으로 돌린 청년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노인에서 그 의도를 느낄 수 있다.

**낭만주의 미술 | 감정의 표현과 순수의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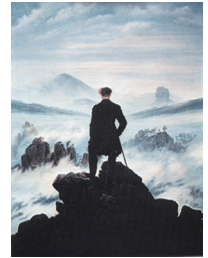
이성을 강조한 신고전주의 미술과는 달리 19세기 초의 낭만주의 미술 사조는 순수한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싹튼 낭만주의 미술은 격정적인 주제나 경이로운 자연을 정열적인 색채와 극적인 구성으로 표현하였다.



테너(Turner, Joseph Mallord William /영국/1775-1851) 노예선(캔버스에 유채/90.8x121.9cm/1840년 작) 테너는 1907년에는 노예제를 폭우 치는 바다에 바닷길 바닷길로 노예 선상에 탄 한 사람과 격렬한 원자로 색채로 표현하였다.



들라크루아(Delacroix, Ferdinand Victor Eugène /프랑스/1798-1863)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캔버스에 유채/260x325cm/1830년 작)



프리드리히(Friedrich, Caspar David /독일/1774-1840)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캔버스에 유채/94.8x74.8cm/1818년 작)



밀레(Millet, Jean François /프랑스/1814-1875) 아낙 줄은 여인들(캔버스에 유채/83.8x111.7cm/1857년 작) 노르망디의 시골 농가에서 태어난 젊은 시골 가부장 생활을 했던 밀레는 농민의 모습을 소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등하게 묘사 표현하였다.

**사실주의 미술 | 현실과 자연**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반기를 든 사실주의 미술은 현실과 자연을 이상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고된 삶을 소박하면서도 영웅적으로 표현하였다.



쿠르베(Courbet, Jean Désiré Gustave /프랑스/1819-1877) 돌 깨는 사람들(캔버스에 유채/165x257cm/1850년 작) 2차 세계 대전 당시 파괴되었다.



도미에(Daumier, Honoré /프랑스/1808-1889) 삼등 열차(캔버스에 유채/65x90cm/1862-1864년 작)

**인상주의 미술 | 자연의 빛과 순간의 아름다움**

어두운 작업실에서 벗어나 튜브 물감을 들고 야외로 나선 인상주의의 화가들은 이전의 명암법과 견고한 구성을 버리고 스펙 사진처럼 순간에 포착되는 인상을 캔버스에 빠르게 그려내고자 하였다.



모네(Monet, Claude /프랑스/1840-1926) 수련(캔버스에 유채/89.9x94.1cm/1906년 작)



르누아르(Renoir, Pierre-Auguste /프랑스/1841-1919) 신상 피터의 점심(캔버스에 유채/130.2x75.6cm/1880-1881년 작)

● **도미에 / 삼등 열차**

현실의 한 장면을 소재로 삼은 그림으로, 도미에는 주로 귀족과 정치가들의 으스스한 모습을 풍자하거나 일상생활 속 소외된 군중들을 그렸다. 삼등 열차에 뻣뻣하게 들어선 인물들을 통해 노동자와 소외 계층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 **밀레 / 이삭 줍는 여인들**

밀레는 바르비종에 살며 평화롭고 목가적인 농촌 풍경을 즐겨 그렸다. 안정된 구성으로 '일하는 사람'을 배치한 소박한 노동의 모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깊은 교감을 보여준다.

**인상주의 미술과 순간의 아름다움: 어두운 작업실에서 벗어나 자연광이 빛나는 야외에서 근대 도시의 활기 넘치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던 인상주의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 **모네 / 수련**

모네는 1883년 지베르니로 이사한 후 '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라 칭했던 수련 시리즈를 그리게 된다. 수련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고자 매일 꽃을 물로 씻었을 정도로 수련과 수련 연못을 사랑했다고 한다. 연못의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모네도 작품 사이즈를 늘려 연꽃을 표현하였고, 백내장이 생기며 시력이 점차 약해지자 그의 수련도 갈수록 흐릿해져 그 형태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순간마다 변화하는 수련의 반사광이다. 수면에 반사되는 하늘 덕분에 빛과 움직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후기 인상주의 미술 | 순간을 넘어 내면의 세계로

아외의 빛과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고자 했던 인상주의 예술가들과 달리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내면의 감정과 영속적인 자연의 구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창조적인 정신과 새로운 형식을 강조한 이들은 이후 20세기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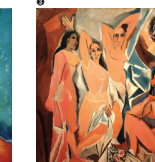


● 세잔(Cézanne, Paul/프랑스/1839-1906) 석고상이 있는 정물(보르노와 동시에 유채/70x57.3cm/1895년 작)  
 ● 반 고흐(Van Gogh, Vincent/네덜란드/1853-1890) 귀가 잘린 자화상(캔버스에 유채/60x49cm/1889년 작)  
 ● 고갱(Gauguin, Paul/프랑스/1848-1903) 오아시 마리아(아에 마리아) (캔버스에 유채/81.7x87.3cm/1891년 작)



### 20세기의 미술 | 표현주의, 아수주의, 입체주의

20세기의 현대 미술은 색채와 형태의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키르히너의 표현주의와 마티스의 아수주의 미술은 강렬하고 원초적인 색으로 색채의 혁명을 일으켰고, 피카소의 입체주의 회화는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형태와 공간을 화폭에 담아 전통적인 원근법을 파괴하였다.



● 키르히너(Kirchner, Ernst Ludwig/독일/1880-1935) 베를린 거리(캔버스에 유채/120.6x91cm/1913년 작) ● 마티스(Matisse, Henri/프랑스/1869-1954) 녹색의 피아노(캔버스에 유채/40x32cm/1905년 작) ● 피카소(Picasso, Pablo/스페인/1881-1973) 기타, 악보, 유리잔(캔버스에 유채/24.4x23.4cm/1907년 작) ● 피카소(Picasso, Pablo/스페인/1881-1973) 기타, 악보, 유리잔(캔버스에 유채/24.4x23.4cm/1907년 작)

### 20세기의 미술 | 미래주의와 구축주의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미술과 러시아의 구축주의 미술은 역동적인 3차원의 조각과 구축물을 통해 기계 문명의 힘과 속도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보초니(Boccioni, Umberto/이탈리아/1882-1916) 공간에서 연속성을 보여주는 특이한 형태(동판/88x11.2x40cm/1913년 작)  
 ● 타틀린(Tatlin, Vladimir Yevgraphovich/러시아/1885-1953) 타타린(타타린) 기념비(철, 유리/높이 1670m/1919-1920년 작)

### ● 르누아르 / 선상 파티의 점심

르누아르와 친구들이 뱃놀이를 하던 센 강변의 샤투 지역에 있는 식당에 모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자유로운 붓터치와 부드러운 색감을 통해 삶을 즐기는 이들의 행복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비교 감상 포인트

자연광의 시각적 현상을 포착하려고 했던 인상주의 회화와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던 후기 인상주의 회화를 비교 감상하며 그 차이점을 함께 이야기해 본다.

**후기 인상주의 미술:**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과 자연의 영속적인 구조를 탐구했던 후기 인상주의 회화의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 세잔 / 석고상이 있는 정물

다시점적인 느낌이 강한 세잔의 정물화로, 공간의 구성이 모순적일 정도로 뒤틀려 있다. 정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것임에도 바닥은 그 뒤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세잔의 캔버스는 큐피드상 뒤쪽 벽을 향해 지그재그로 비스듬히 튀어나와 공간을 가르고 있지만 원근감은 찾아볼 수 없다. 세잔의 회화가 피카소의 입체파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다.

### ● 반 고흐 / 귀가 잘린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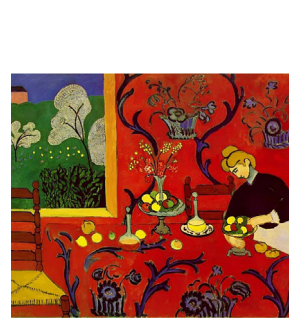
그는 생전에 40여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이는 네덜란드 출

신의 화가인 렘브란트를 제외하면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작품 수이다. 그의 자화상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어 고통 받는 그의 영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고갱과의 다툼 끝에 자해한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후에 그려진 작품이다. 매우 제한적인 색채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눈에 집중시키며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는 “나는 성당을 그리느니 인간의 눈을 그리겠다. 성당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인간의 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표현주의, 아수주의, 입체주의:** 20세기 초 유럽의 표현주의, 아수주의, 입체주의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회화 작품들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 아수주의와 입체주의 미술 비교 감상 포인트

조형 요소와 관련하여 아수주의는 강렬한 색채를, 입체주의는 형태의 분석을 중시한다는 점을 비교 감상을 통해 확인하고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마티스, 붉은 방(캔버스에 유채/180.5x221cm/1908년 작)  
 순수하고 강렬한 색채를 전면 사용함.



피카소, 칸바일라의 초상(캔버스에 유채/100.4x72.4cm/1910년 작)  
 회색과 갈색 톤으로 색채를 억제하고 형태와 공간의 분석에 집중함.

### ● 피카소 / 아비뇰의 아가씨들

피카소가 소년 시절을 보낸 바르셀로나의 빈민가 아비뇰은 밤의 여인들이 선원을 상대하는 집들이 늘어난 곳으로 환락과 폭력으로 물든 어수선한 동네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불안한 시대 상황 속에서 유년 시절에 본 아비뇰의 여인들과 꽃다발, 과일 광주리를 통해 쾌락을 상징했다. 그러나 왼편의 여인이 손으로 받든 시체는 이 세상의 어떤 쾌락도 항상 죽음의 그림자에 위협당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그림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정면성의 법칙, 흑인 조각이나 가면이 지니는 영적인 상징성, 고갱의 원시적인 소박성 등 온갖 요소가 어우러져 하나의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주의, 구축주의:** 움직임과 역동성을 강조한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미술과 기계문명의 힘과 역사의 진보를 표현한 러시아의 구축주의 미술을 감상하고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 보초니 / 공간에서 연속성을 보여 주는 특이한 형태

미래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다리를 불꽃같이 펠릭이며 공간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 타틀린 / <제3인터내셔널 기념비>를 위한 모델

유리,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산업 소재로 3차원적인 작품을 구축하고자 했던 타틀린은 거대한 기념비가 움직이도록 구상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타틀린은 이 기념비를 통해 1917년 새롭게 탄생한 소련의 역동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추상 회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기하학적 도형이나 유기적인 형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추상 회화를 감상하고 그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과 칸딘스키의 유기적 추상 비교 감상 포인트**

몬드리안과 칸딘스키의 추상 회화에서 각각 두드러지는 조형 요소를 찾아보고 이를 비교 감상하며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몬드리안, 빨강, 노랑, 파랑이 있는 구성 III (1930)

수평선, 수직선, 사각형 등 기하학적인 형태가 두드러지고 색의 삼원색과 흰색, 검은색이 사용되어 균형, 조화, 대비의 조형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음.



칸딘스키, 구성 V (1911)

자유롭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유기적인 곡선과 산이나 사람 같은 형태를 변형한 듯한 형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에너지가 충만한 역동성과 생동감이 넘침.

● 몬드리안 /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몬드리안은 입체주의 그림을 접한 후 나무를 소재로 점차적으로 단순화 과정을 거쳐 기하학적인 조형을 이루어내는 '나무' 연작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수직선, 수평선, 빨강, 파랑, 노랑을 사용한 그의 단순한 기하학적 추상화에 도달하게 된다. <회색 나무>에서는 아직 구상의 요소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추상 회화에서는 재현적인 요소를 완전히 벗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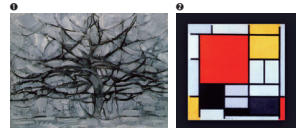
**다다, 초현실주의:** 포토몽타주와 레디메이드 같은 도전적인 방식을 쓰는 다다와 꿈의 세계, 무의식의 영역을 가시화하는 초현실주의 미술을 감상하고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뒤샹 / 샘

뒤샹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1910년대의 반예술 운동인 다다의 중심 인물이었다. 뒤샹은 작품에 대한 착상이나 선택의 과정을 완성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결과 '레디메이드(기성품)'이라는 새 장르를 개척하게 되었다. 당시 평론가들은 예술을 모독하였다 하여 거친 비판을 퍼부었고 결국 전시회 출품을 거절당했지만,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제품을 선택하여 도구의 성격을 없애고 대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20세기의 미술 | 추상 회화의 탄생**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대상의 외형보다는 자연의 내적인 원리나 예술가의 정신적인 세계를 순수한 조형 요소로 표현하는 추상 회화가 탄생하였다. 몬드리안의 데 스틸, 칸딘스키가 이끈 청기사 그룹,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 쿠르투의 오프르즘은 대표적인 추상 회화 사조이다.



몬드리안(Mondrian, Piet) 네덜란드 / 1872-1944 ● 회색 나무(캔버스에 유채) / 79.7x109cm / 1911년 작 ●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캔버스에 유채) / 51x61cm / 1930년 작



쿠르투(Kukla, Frantisek) 체코 / 1871-1957 ● 눈먼의 환상(캔버스에 유채) / 70.3x73.7cm / 1921년 작



말레비치(Malevich, Kazimir Severinovich) 러시아 / 1878-1935 ● 절대주의 회화: 하늘을 나는 비행기(캔버스에 유채) / 58.1x48.3cm / 1915년 작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 러시아-프랑스 / 1866-1944 ● 구성 VII(캔버스에 유채) / 200x300cm / 1913년 작

**20세기의 미술 | 다다와 초현실주의**

제1차 세계 대전 중 유럽에서 출현한 다다는 기존의 문화적 전통을 강하게 비판하며 레디메이드와 같은 도전적인 미술을 시도했다. 이를 이어받은 초현실주의 미술은 무의식의 세계를 원시적으로 표현하거나 낯설고 기이한 오브제를 선택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에 질문을 제기하였다.



● 회화(Hoch, Hannah) 독일 / 1889-1978 ● 부엌 걸레 지문 플라주(종이) / 14x90cm / 1919-1920년 작  
● 뒤샹(Duchamp, Marcel) 미국 / 1887-1968 ● 생레디메이드(세라믹) / 63x48x35cm / 1917년 만든 1964년 재제작



달리(Dali, Salvador) 에스파냐-미국 / 1904-1989 ● 해변의 얼굴과 과일 접시의 환영(캔버스에 유채) / 114.8x143.8cm / 1938년 작



미로(Miró, Joan) 에스파냐 / 1893-1983 ● 어릿광대의 사육제(캔버스에 유채) / 66x93cm / 1924-1925년 작



오펜하임(Oppenheim, Meret) 스위스 / 1913-1985 ● 오프제, 모피로 된 어릿광대처럼 머문 컵과 받침. 스펀 / 높이 7.3cm / 1956년 작

● 달리 / 해변의 얼굴과 과일 접시의 환영

달리는 초현실주의 작가로 꿈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혼돈 상태를 모방하려 했다. 그는 서로 모순되는 현실의 단편들을 놀랍도록 잘 섞어 치밀하고 정교하게 묘사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해변에 놓여 있는 과일 접시가 동시에 여인의 얼굴로 보이는 이중 시각(double vision)을 마치 생생한 꿈처럼 세밀하게 그려놓았다.

**추상 표현주의, 앵포르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한 추상 표현주의 미술과 앵포르멜 미술을 비교 감상하고 유연성과 비정형 등의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폴록 / 가을 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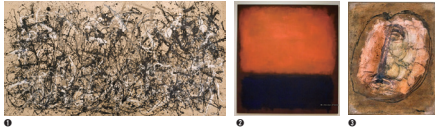
색스 폴록은 바다에 펼쳐 놓은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거나 떨어뜨리는 드립 페인팅이라는 작업을 통하여 거대한 회화를 제작하였다. 물감을 뿌리는 폴록의 행위는 거의 춤과 흡사할 정도여서 이후 해프닝과 같은 행위 미술에 영향을 미쳤다. 폴록의 회화는 우연적인 동작과 즉흥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철저한 의도와 치밀한 힘의 조절이 내재되어 있어 우연성과 필연성의 완벽한 조화를 느끼게 한다.

● 포트리에 / 인질의 머리, No.1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며 <인질들> 연작을 그린 장 포트리에에는 유럽의 앵포르멜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석고 반죽을 문겨 바르고 파스텔 가루를 뿌리거나 붓으로 윤곽을 그리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작업한 전

**20세기의 미술 | 추상 표현주의와 앵포르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의 뉴욕에서 출현한 추상 표현주의 회화는 벽화에 가까울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캔버스에 즉흥적인 뿌리거나 서정적인 색면을 사용하여 인간의 고뇌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등이 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는 형상이 해체된 앵포르멜 미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장 뒤뷔페, 장 포트라에 등 앵포르멜 미술가들은 비정형화된 형식과 거친 문성을 통해 전쟁의 파괴와 상흔을 표현하였다.



● **폴록**(Pollock, Jackson/미국/1912~1956) **가을 리듬**(캔버스에 해나를 페인트/266.7x225.8cm/1956년 작) 뉴욕 앵포르멜주의 미술인 폴록은 혁신적인 뿌리기 기법을 사용하여 혼돈과 질서가 절묘하게 결합된 새로운 추상 회화를 개척했다.  
● **로스코**(Rothko, Mark/미국 - 미국/1903~1970) **No.14**(캔버스에 유채/221x268cm/1960년 작)  
● **포트라에**(Fautrier, Jean/프랑스/1896~1964) **인간의 머리, No.1**(종이에 혼합재료/34.9x 27.3cm/1944년 작)

**20세기의 미술 | 팝 아트와 미니멀 아트**

1960년대를 풍미한 팝 아트와 미니멀 아트는 20세기 후반 대중문화와 산업 사회의 특징을 적극 수용하였다. 팝 아트가 영화배우의 사진이나 만화 이미지를 차용했다면, 미니멀 아트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벽돌 같은 산업 재료를 단순 반복하는 형식을 취했다.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가을 리듬**(캔버스에 스크린 프린트/254x50.8cm/1967년 작) 대중 스타의 화려함 속에 가려진 인간의 의로움을 인공적인 색채의 실드 스크린으로 표현하였다.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 Roy/미국/1923~1997) **행인**(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172.7 x 40.6cm/1963년 작)  
**저드**(Judd, Donald/미국/1928~1994) **무제**(철도, 황색시 클러스 강철 받침대/295.9x61x68.6cm/1969년 작) 벽스 형태의 기본 요소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배치한 대표적인 미니멀 아트 작품이다.



**더 알아보기 | 원주인의 미술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회화**

폴록은 현대 미술에서 가장 혁신적인 화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 놓고 붉은 에나멜 페인트를 흠뿌리거나 떨어뜨리는 방식은 전통적인 아방 화회의 형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이런 제작 방식에 영향을 준 것은 바닥에 모래를 뿌려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던 미국의 원주민 나바호 족의 미술이었다. 폴록은 서양 미술의 규범이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미국 원주민의 미술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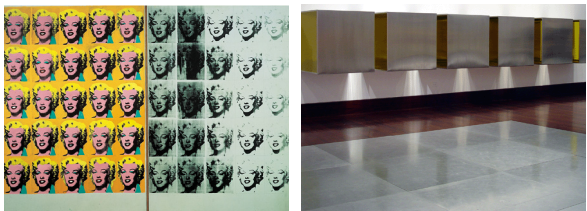
역선 페인팅을 제작하는 잭슨 폴록, 1950년 한스 나우스의 사진

쟁의 참혹한 아픔을 비정형적인 추상으로 표현하였다.

**팝 아트, 미니멀 아트:** 대중문화와 산업 사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1960년대의 팝 아트와 미니멀 아트를 비교 감상하며 각각의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팝 아트와 미니멀 아트의 비교 감상 포인트**

대중문화의 스타 얼굴 등 대상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워홀의 그림은 기하학적인 금속 박스를 배치한 저드의 조각과 매우 달라 보인다. 하지만 실크 스크린이라는 복제 방식을 통해 회화를 대량으로 반복해서 찍어내는 워홀의 그림은 금속 박스를 기계적으로 반복 배치한 저드의 작품과 유사성을 지닌다. 두 작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워홀, 마를린 이면화**(캔버스에 실크 스크린/205.4x289.5cm/1962년 작)  
**저드, 무제**(스테인리스 스틸, 플렉시 글라스/86.4x86.4x86.4cm 유닛 6개/1968년 작)

● **워홀 / 마를린 몬로**

“당신이 팝 아트를 보는 순간 미국을 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예술을 ‘세상의 거울’이라고 칭했던 워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대량 생산하였다. 마를린 먼로가 의문사

한 후에는 즉각적으로 그녀를 작품에 등장시켰고, 스타뿐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나 지명 수배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다.

● **저드 / 무제**

저드는 기계로 만든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플라스틱 유리, 합판 상자 등을 이용하여 벽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배치하는 미니멀 작품을 제작하였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화가의 감정, 개성, 알아볼 수 있는 형상들을 일체 제거하고 상업적으로 생산된 재료들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대부분 좌대 없이 바닥에 바로 놓거나 야외에 설치하였다. 그들은 관객이 실제 공간에 좌대나 액자 없이 놓인 미니멀 작품을 물리적인 대상처럼 체험할 것을 강조한다.

**20세기의 미술:** 완성작의 조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작가의 개념, 과정과 행위, 자연으로의 확장 등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추구하는 개념 미술, 행위 미술, 대지 미술을 감상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개념 미술, 행위 미술 감상 포인트**

개념 미술과 행위 미술을 감상하면서 개념이나 행위만으로도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술이라 할 수 있는지 모둠별로 토론하고 각 모둠의 의견을 발표해 본다.

● **홀저 / 경구**

페미니즘 미술의 대표 작가인 홀저는 짧은 격언 형태의 문구들을 사용하여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이 문구들을 도시 곳곳의 빌보드나 축구 경기장의 광고판을 이용해 대중적인 공공장소에 제시한다. 최근에는 미술관 벽면과 바닥, 천정 등 전체 공간을 활용하여 LED 전광판에 의미심장한 문구나 공적인 문서의 내용을 띄우는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쿠르거 / 무제(당신의 육체는 전전터다)**

미국의 제 1세대 페미니즘 미술가인 그녀의 이 작품은 포토몽타주 기법으로 절반은 양화, 절반은 음화로 표현된 얼굴 배경에 흑색과 적색을 극적으로 대비시켰다. 힘이 넘치는 이 작품은 정치 선전화로 쓰이며 널리 알려졌는데, 이 작품의 의도는 그녀가 1989년 낙태 권리 회복 시위를 위한 선전화로 쓰려고 다시 꾸미면서 명백해졌다. 하지만 하나의 얼굴에 대립되는 두 개의 명암 구도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작품은 남성/여성, 미술/사진, 자아/타아, 모던/포스트모던 등 갖가지 의미들을 떠오르게 한다.

● **드마리아 / 번개 치는 들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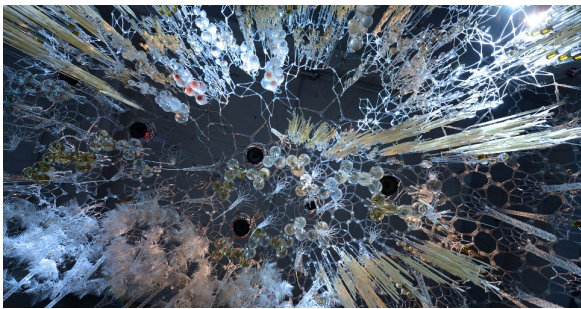
미국의 대지 미술 작가인 드마리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길이 1.6km, 폭 1km의 뉴멕시코의 광활한 들판에 높이 7m의 스테인리스 스틸 봉 40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것이다. 이 대지 미술 작품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스테인리

스 스틸 봉에 번개의 섬광이 내리치도록 만들었는데, 자연의 거대한 힘을 조형적인 가시 영역으로 이끌어내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21세기 동시대 미술:** 21세기에는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매체와 함께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뉴 미디어가 공존하며 미술의 지평이 한층 넓어지고 있다.

**미디어 아트 감상 포인트**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21세기의 미디어 아트는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지는 참여형 미술임을 이해한다. 특히 비슬리의 작품은 첨단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관객이 만지거나 소리를 내면 거기에 반응하고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고 신호를 교환한다. 미술관이나 과학 박물관을 방문하여 첨단 미디어 아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비슬리, 착생 식물원, 2013.

● 구르스키 / 메이 데이 V

구르스키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현대 사회와 문화의 공간에 유행성을 가미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었다. 정형화된 아파트 건물, 대형 할인점의 진열장, 기계적인 사무실 공간 등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획일화된 현대 사회의 단면을 디지털 사진으로 담아내는 기하학적 수평과 수직적 요소를 강조하는 시점과 앵글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을 극도로 선명하게 표현한다. 유형학적 사진의 대가라고 불리는 그의 사진은 너무 사실적이어서 시각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인공적인 구조도 많아 마치 연출된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여, 현실과 가상의 구분을 흐리게 한다.

● 비올라 / 해변 없는 바다

삶과 죽음 사이의 간극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조우를 연속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비디오 작품으로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된 비올라가 베니스의 작은 성당에 설치한 작품이다. 연속적인 비디오 이미지들은 인간의 형상이 흐릿한 어둠 속에서 밝은 공간으로 나오며 점차적으로 실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형상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더 구체화된 형상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어 물질세계로 들어오는데,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본질과의 만남, 죽음에서 삶으로의 이행, 존재의 변화를 환상적인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준다.

**20세기의 미술 | 대지 미술/개념 미술/행위 미술**

1970년대 이후 현대 미술은 대지 미술, 개념 미술, 행위 미술 등 전통적인 매체나 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자연 미술, 환경 미술이라고도 불리는 대지 미술은 낙엽이나 번개 등 자연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였고 전시 공간 또한 대자연이나 공공 환경으로 옮겨놓았다. 개념 미술과 행위 미술은 작품의 형식 자체보다 작업 과정에 깔려 있는 생각이나 행위를 강조한다.

크리스토 & 잔 클로드(Christo(불가리아-미국)1935-) & Jeanne Claude(프랑스-미국)1935-2009) **붉은 해변** 1969-1983년 적대지역(미군)에 있는 119개의 섬을 분홍색 천으로 덮어 준바, 대지 미술 프로젝트로 오랜 준비 끝에 실현되었다. 환경 보존을 위해 2주 동안 설치된 후 철거되었다.



드워라(De Maro, Walter, Joseph(미국)1925-2013) **번개** 제논 불탄스테인리스강등 400개/1974년 작 미국 뉴저시



보이스(Beuys, Joseph) 독일(1921-1986) **죽은 말에게 그림 설명하기**(행위 미술) 기록 사진/1965-70년



홀저(Holzer, Jenny)미국(1950-) **경구 삶은 리허설이 아니다**(기록 사진)1993년 작뉴욕 맨해튼 극장 건물에 걸린 999구 자체가 예술 작품으로, 글은 읽고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개념 미술'이다.



쿠르거(Kruger, Barbara)미국(1945-) **무제**(당신의 육체는 전쟁터이다)(포토 콜라주)1989년 작

**21세기 동시대 미술 | 전통 매체와 뉴 미디어의 공존**

전통적인 매체와 첨단 과학 기술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21세기의 동시대 미술은 인간, 자연, 과학, 종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그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구르스키(Gunther, Andreas)독일(1955-) **메이 데이 V**(VR 프린트)24x217.9m/2006년 작



비올라(Viola, Bill)미국(1951-) **해변 없는 바다**(비디오)길이 65인치, 플라즈마 스크린(2007년 작) 베니스 상-장르 비엔날레



비슬리(Beesley, Philip)미국(1956-) **착생 식물원**(디지털 센서, LED 등 복합 매체)가변 크기(2013년 작) 첨단 센서와 인터랙티브 기술로 완성된 이 거대한 설치 작품은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 신호를 교환하며 변형한다.



페이튼(Peyton, Elizabeth)미국(1965-) **작화상**나무 액자에 유채65x90cm/2003년 작

▶ **점검해 보기** · 사영 미술의 유혹을 세계사의 맥락과 연결하여 이해했는가? · 사영 미술의 대표적 작품을 등장 및 우리·타인의 주요 작품과 비교해 보고, 각각의 특징과 독특한 아름다움에 대해 토론해 보자.

■ 비올라의 설명과 비디오 작품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cg1yxEW-Z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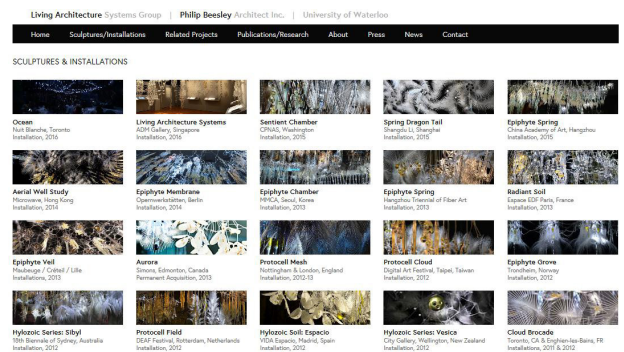
● 비슬리 / 착생 식물원

현재 캐나다의 건축학과 교수이기도 한 비슬리는 예술과 디자인, 첨단 과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착생 식물원'을 제작했다. 이 작품은 몸에서 느끼는 감각들의 일부를 연출한 것으로, 플라스틱과 유리, 금속 등의 소재를 정밀하게 연결하여 마치 인간의 신경 세포 같은 느낌을 준다.

실제로 이 작품은 안에 수많은 마이크로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촉수를 구부리듯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관람객의 동작에 반응한다.

■ 비슬리의 모든 작품이 소개되어 있는 작가 홈페이지

<http://www.philipbeesleyarchitec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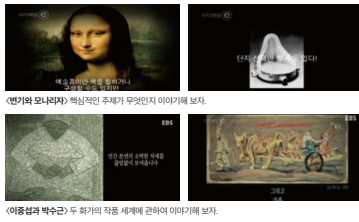


**탐구 활동** 미술사 지식 나눔 동영상 제작하기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미술가의 미술 작품을 탐색하여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자. 완성된 미술사 지식 나눔 동영상에 다 같이 감상한 후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이야기해 보자.

**모둠 탐구 활동 과정**

- 1 EBS 지식 채널 e의 미술사 동영상 감상 후 토의를 통한 주제 선정
- 2 스마트기기 도서관 등을 이용한 자료 탐색
- 3 자료 정리 및 스토리 보드 구성
- 4 편집 및 효과 삽입
- 5 완성
- 6 감상 후 의견 나누기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는 보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정리한 계획표를 말한다. 스토리보드에는 미술사 지식 나눔 동영상에 맞게 주요 장면에 들어갈 화면들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화면에 적합한 자막과 해설을 작성한다.

모듬명	이중섭과 박수근의 작품 세계			순서	4페이지
장면 번호	화면	자막	해설	시간	
01-3		(시청과 여인) (여기보는 소녀)	서민의 일상물 마스 한 반달로 그려낸 박수근 고난했던 삶의 표정 을 여백에도 세심 회상할 공간에 깊은 선으로 표현하였다.	3초	
01-4		(영아 있는 여인)	인간 끝면의 소박 한 모습을 잘 보여 이 보여 준다.	2초	

**동영상 제작 과정**



① 미술사 주제 선정



② 인터넷과 책을 통한 자료 수집

③ 스토리보드 만들기

④ 자료 편집 및 효과 삽입

⑤ 최종 검토 및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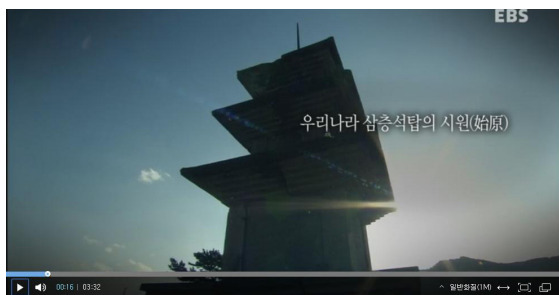
**탐구 활동** 미술사 지식 나눔 동영상 제작하기

모듬 별로 미술가, 미술 작품, 미술 사조 등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3분 정도 길이의 '미술사 지식 나눔 동영상'을 제작하여 발표해 본다.

**탐구 활동 과정**

- 1 EBS 지식채널 e에 소개된 다양한 미술사 동영상 감상한 후 각 모듬 별로 이제까지 배운 한국, 동양, 서양 미술사 중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한다.
- 2 자료 탐색은 도서관의 도서 자료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 제공된 정보 및 이미지를 선택하여 내용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 3 스토리보드 구성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캡션을 삽입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인지, 직접 목소리로 캡션 내용을 읽어 음성을 삽입할 것인지, 또 어떤 효과음악을 넣어 영상의 효과를 증폭시킬 것인지를 시간대별로 기록함으로써 편집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도한다.
- 4 동영상 완성 후에는 함께 감상하며 미술사 지식 나눔을 통해 배운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학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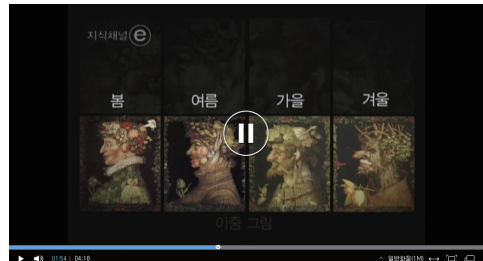
문화유산 시리즈 - 김은사 삼층 석탑



문화유산 시리즈 - 비례, 균형, 조화의 불국사



문화유산 시리즈 - 민화에는 조형의 해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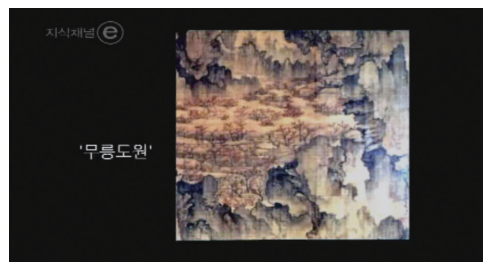
지식채널 e Life - 이중 그림



지식채널 e Life - 프리다



지식채널 e Life - 빨간 수목화



지식채널 e Life - 가운데 그림

\*참고 사이트: <http://www.ebs.co.kr>



## ■ 지식 창고

### 영상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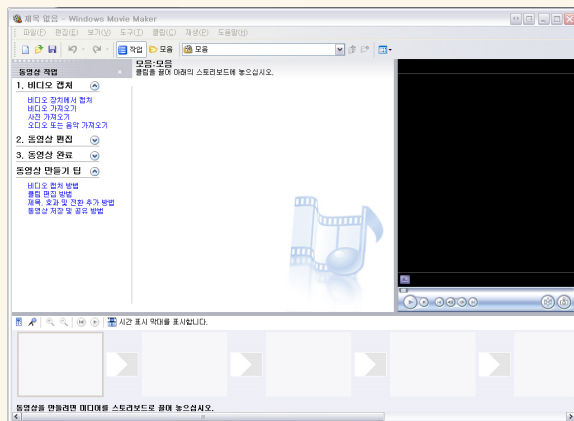
- ① 기획 - 기획안 작성, 제작 협의 등 사전 제작 준비
- ② 대본 - 시나리오 작성, 콘티, 내레이션, 스태프 및 출연진 결정
- ③ 촬영 - 연출 및 촬영
- ④ 편집 - 컷 편집, CG 작업, 특수 효과, 음향 편집, 녹음 더빙 작업 등
- ⑤ 완성 - 수정 및 완성

### 영상 편집의 종류

- ① 결합(Combine)- 편집 시 적절한 순서에 따라 장면별로 짜 맞춰 프로그램의 부분들을 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② 손질(Trim)- 영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잘라내어 말끔히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수정(Correct)- 잘못 촬영한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곳을 원하는 장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잘라내는 것이 아닌 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 ④ 구성(Build)- 이미 촬영이 완료된 수많은 화면들을 이용하여 다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 작업은 촬영된 장면들을 세심하게 프리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종류

#### ① 윈도 무비 메이커(Windows Movie Ma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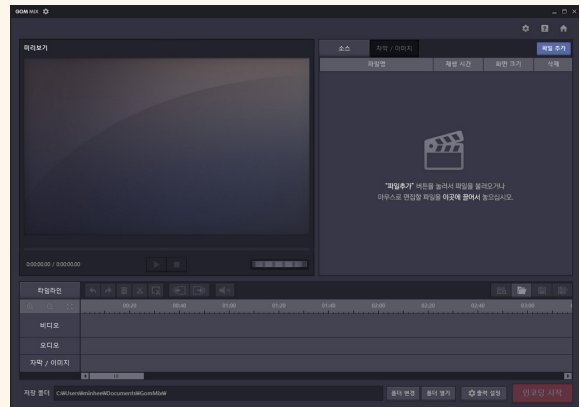
비디오카메라나 DV캠 등의 비디오 영상을 쉽게 편집,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② 뵈믹스(Vapmix)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동영상 파일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③ 곱믹스(GOM M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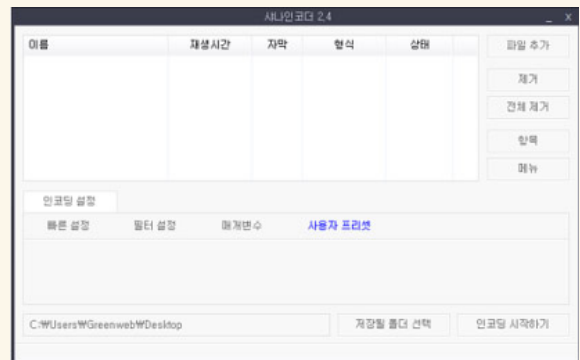
간편하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상 자르기, 배경 음악 추가, 자막 삽입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④ 밴디컷(Bandicut)



인코딩 과정을 거치지 않아 화질의 손상 없이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

#### ⑤ 샤나인코더(ShanaEncoder)



별도의 코덱이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게 동영상, 오디오 인코딩이 가능한 프로그램